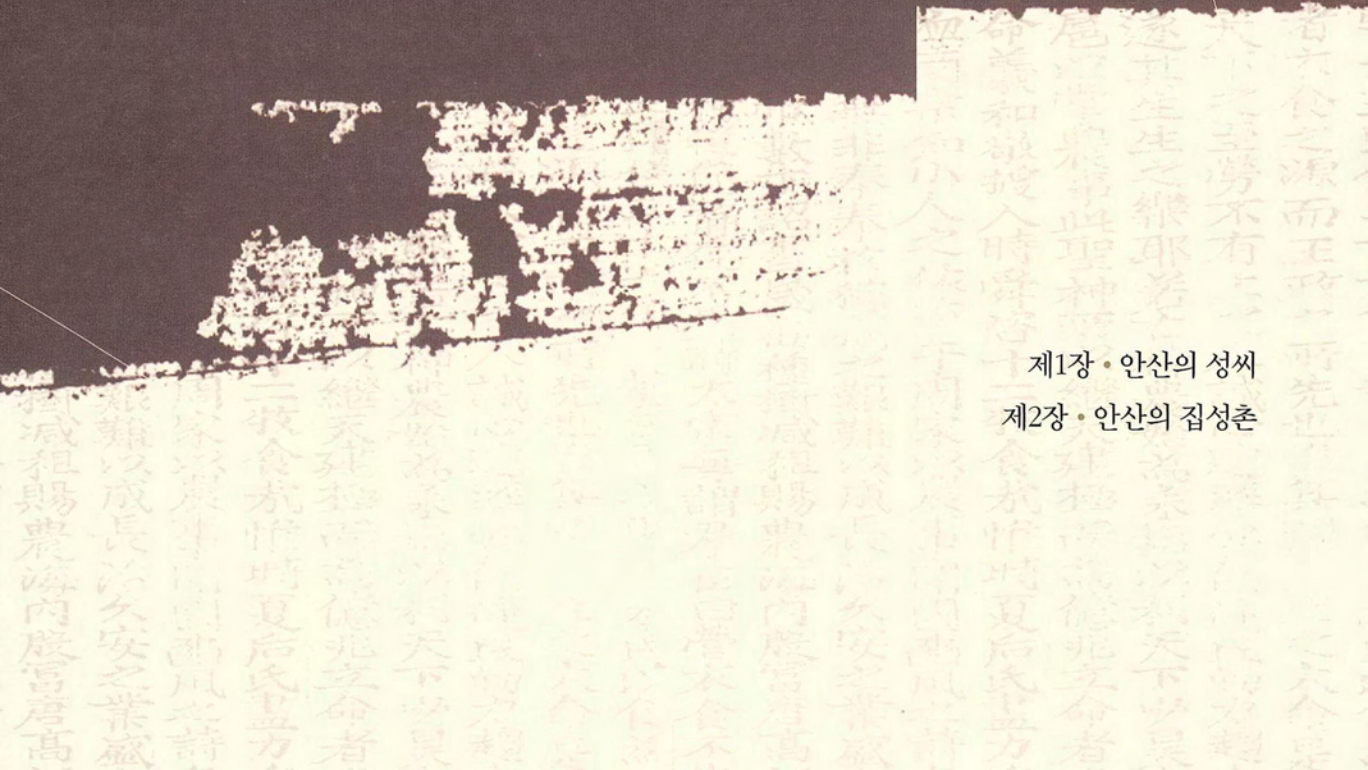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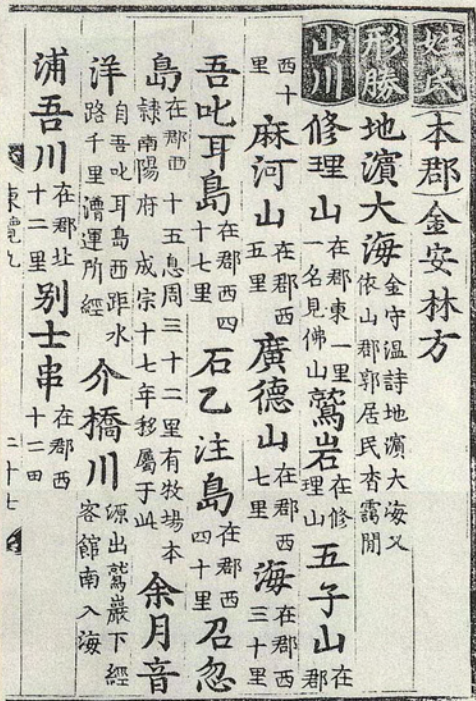
제1편

성씨와 집성촌



제1장 · 안산의 성씨

제2장 · 안산의 집성촌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성씨조

안산의 관적貫籍 성씨란 안산을 본관本貫으로 하는, 즉 안산에서 그 유래가 시작된 성씨를 말한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토성土姓으로 김금·안안·방방 3개 성씨를 들고 망성亡姓으로 임림씨를 들었다. 조선 고종대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의 제계고帝系考에는 안산을 관적으로 하는 36개 성씨가 보이는데, 강姜·공孔·구具·권權·김金·남南·노盧·박朴·방方·배裴·백白·변卞·변邊·봉奉·서徐·석石·설薛·송宋·안安·염廉·유劉·임林·장張·장蔣·정鄭·조趙·차車·채蔡·최崔·탁卓·피皮·한韓·허許·현玄·홍洪·황黃 등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김·이·안·송·여·방씨만이 통계청 성씨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세거世居 성씨는 본관은 다른 곳이지만 안산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성씨들을 말한다. 세거는 그 기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적어도 6대 이상을 살아오고 선영先塋을 가지고 있는 집안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안산의 경우는 《연성성보蓮城姓譜》(1984)에서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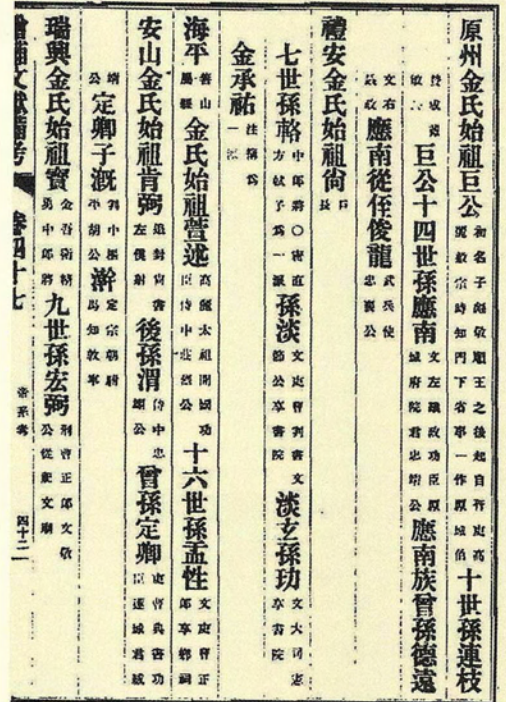
을 대표하는 73개 집안을 꼽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연성은 안산의 이칭異稱이다. 안산의 향보鄉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본래 1857년(철종 8) 이동식李東植의 감수 아래 강제홍姜在鴻이 짓고 12부를 필사하여 발간한 책으로 22년 후인 1878년(고종 15)에 다시 만들어 각 문중이 소장하고 있었는데 6·25전쟁 때 거의 소실되었다고 한다. 다행히 언양김씨 집안에 그 일부가 있어 1984년에 이를 기본으로 15인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문중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다시 간행한 것이다. 안산에는 이 책에 실리지 않은 세거 성씨들이 더 있어 추가하였지만 본의 아니게 빠진 집안도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한다.

제1절 관적 성씨

1. 안산김씨

안산김씨(安山金氏)는 연성김씨(蓮城金氏)라고도 하며, 김공필(金肯弼)을 시조로 한다. 그의 아들은 김은부(金殷傅(?~1017))로 고려 현종 때 호부상서와 중추사상호군을 지냈다. 그는 1011년(현종 2) 거란 침입 때 공주절도사로 왕을 극진히 모셔 첫째 딸을 현종의 비 원성왕후로, 둘째와 셋째를 각각 원혜왕후와 원평왕후로 들이면서 안산에 1,000호의 식읍을 받은 인물이다. 안산김씨가 조선에 들어와서도 일대의 거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 좌명공신으로 연성군(蓮城君)에 봉해진 12세조 김정경(金定卿, 1345~1419)의 영향이 컸다. 그는 4명의 임금을 섬기면서 삼군통제사·이조전서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김정경의 손자인 14세 사재정(司宰正) 김맹전(金孟鎰)의 묘가 선부동에 있어 이후 안산 세거의 근거가 된다. 그의 후손들이 선부동 석수골·비누지, 장상동의 노리울·동막골, 와동 등에 세거하였으며, 장하동 탑골에는 사패지가 있었다. 노리울은 안산김씨(연성김씨)가 처음 세거하여 '연성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안산김씨 출신 화가로 조선 중기에 활약한 연담(蓮潭) 김명국(金明國, 1600~?)은 산수인물화 및 선종화(달마도·나한 등)를 잘 그렸다. 그는 김정경의 12대손으로 할아버지는 부사과를 지낸 김순호(金純豪), 아버지는 김중휘(金重輝)이다. 그의 형 김선국(金善國)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안산에 세거하였다고 한다. 2000년 통계청 발표에는 전국적으로 4,656가구 총 1만 4,975명이 있다.



《증보문헌비고》 제계고 안산김씨

2. 안산이씨

안산을 본관으로 하는 이씨는 둘인데, 하나는 함경도 철산의 옛 지명인 안산을 관적으로 하는 성씨여서 이곳 안산과는 무관하다. 이곳을 본관으로 하는 안산이씨安山李氏는 조선시대에 연안이씨延安李氏에서 분적分籍한 이인수李仁守를 시조로 한다. 별시위를 지낸 그는 태자첨사를 지낸 이습홍李襲洪의 10대손으로 알려져 있다. 이인수는 아버지 이근수李根粹가 살던 강원도 이천伊川(북한지역)에서 안산으로 이주해 왔다고 한다.

안산이씨 출신으로는 조선 후기에 화가로 이름을 날린 운재雲齋 이의양李義養(1766~?), 희원希園 이한철李漢喆(1808~?) 부자가 있다. 이의양은 산수화에 능하였고, 군수를 지낸 이한철은 산수·화조花鳥·인물 등에 능했다. 2000년 통계청 발표에는 전국적으로 1,184가구 총 3,667명이 있다.

3. 안산안씨

안산안씨安山安氏의 시조는 안자유安子由로 고려 말기인 충목왕 때 첨의평리僉議平理를 지냈다고 하나 정확한 세계世系나 본관 유래는 알 수 없다. 고려 말기 인물로 무장김씨茂長金氏 시조인 김선金璇의 부인이 안산안씨인데 안진安鎭의 딸이다. 또한 현충원의 주혈主穴을 차지한 창빈昌嬪 안씨도 안산안씨이다. 조선 11대 중종의 아홉 부인 중 여섯 번째 후궁으로, 손자는 중종과 창빈 안씨 사이에서 난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인 선조다. 창빈 안씨는 1499년(연산군 5)에 시흥의 한미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안탄대安坦大는 중종반정 이후 원종공신에 책록되어 적순부위迪順副尉가 되었다. 그의 묘는 단원구 성곡동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83호로 지정되어 있다. 묘비문은 효종 때 왕명으로 비문을 지으면서도 안산안씨라고만 밝히고 선조나 가계를 밝히지 않았으며 자나 호·생몰연대도 적혀 있지 않다. 2000년 통계청 발표에는 전국적으로 269가구 총 872명이 있다.

4. 그 밖의 관적 성씨

안산송씨(安山宋氏)는 송유(宋維)를 시조로 한다. 그는 고려 때 호장(戶長)으로 증윤(中尹)을 지냈다고 하나 기록이 없어 세계를 따지기 어렵다. 2000년 통계청 발표에는 전국적으로 128가구 총 426명이 있다.

안산여씨(安山汝氏)는 1930년 국세조사 때 처음 등장한 성씨로, 내력을 전혀 알 수 없어 국세조사 때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 통계청 발표에는 전국적으로 118가구 총 355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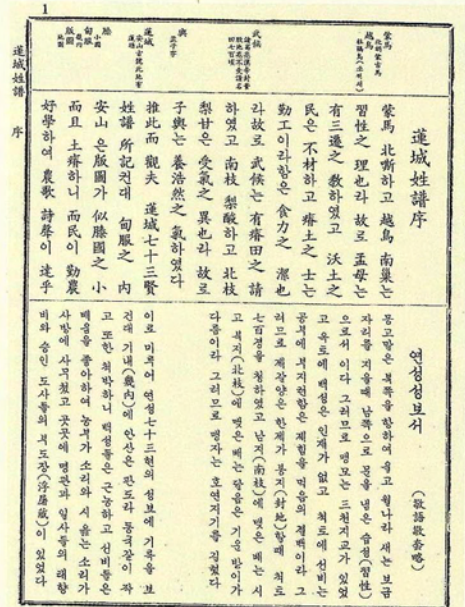
안산방씨(安山方氏)는 《세종실록지리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토성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시조나 내력은 알 수가 없다. 2000년 통계청 발표에는 전국적으로 102가구 총 300명이 있다.

제2절 세거 성씨

세거 성씨로 일컬어지려면 집안의 일가들이 해당 지역에 기본적으로 향제(鄉第), 즉 고향집을 두고 있어야 한다. 경기지역 중에서도 고려의 수도 송도와 조선의 수도 한양 사이의 지역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근기(近畿)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한강 이남의 경기지역은 조선에 들어와 근기가 되었다. 조선 초기에 이미 핵심 양반들은 한강 이북에서 이남으로 진출한 흔적을 남겼다. 파주나 양주에서 용인 등으로 이동한 연일정씨·용인이씨·한양조씨 등이 그 예다. 이 외에도 한산이씨·파평윤씨·양천허씨·광주이씨·여흥민씨·양주조씨·덕수이씨 등은 이미 이전부터 근기에 별서(別墅)의 기능도 겸한 향제를 두고 있는 집안이다.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조선에 들어와 근기를 향제로 하고

안산지역의 향보인 《연성성보(蓮城姓譜)》 서문



있는 집안 중에는 전주이씨 왕족과 부마駙馬 집안, 그리고 그 밖에 경기 일대에 사패지를 받은 공신 집안이 많다. 개간할 땅과 편리한 교통이 확보된 지역은 시대를 막론하고 힘을 가진 지배층이 선호하는 곳이다. 안산과 시흥을 보면, 먼저 교통이 좋은 시흥현(금천현)의 읍치인 시흥리를 시작으로 시대가 내려갈수록 개간의 여지가 많은 서남 해안의 안산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즉 사족의 개간사업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서남 방향 안산으로 넓어졌다. 그 한 예로 안산군 대월면 거모포去毛浦(현 시흥시 거모동)에 살던 청주한씨 한백원韓百源 중가에서 1833년(순조 33)에 작성한 소지所志 문서를 보면, 이들이 1751년(영조 27)에 사패지로 받은 땅에 수구를 막아 개간지로 만들려 한 사실이 나와 있다.

진주강씨



진주강씨 재실 부한재(양상동)

진주강씨晉州姜氏의 시조는 고구려 장수 강이식姜以式이다. 이후 중시조인 박사공博士公 강계용姜啓庸 대부터 진주에 세거하였는데, 그의 10세 참판공參判公 강징姜徵의 후손이 양상동 옷버대와 아랫버대 등에 세거하였다. 박사공과 후손으로는 강희안姜希顔·강희맹姜希孟 형제의 별서가 시흥시 하중동에 있었고, 강희맹의 묘가 시흥시 하상동에 있다. 처가가 안산에 있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晁은 안산에 30여 년간 머무르며 문예 활동을 하였고, 그 후손 중 일부가 안산에 세거하였다.

양상동 옷버대·아랫버대, 신길동 능길, 원시동 범직이, 선부동 관모산·달미·비누지 등에 세거하였다.

안동권씨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시조는 권행權幸이다. 그의 아래로 14파가 있는데, 17세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복權復의 후손과 20세 양평공讓平公 권함權域의 후손이 시흥시 정왕동 등에 세거하였다. 조선 제5대 문종의 왕후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 권씨의 소릉昭陵이 목내동에 있었다. 신길동 성안에 안동권씨가 세거하였다.

경주김씨

경주김씨慶州金氏의 시조는 김알지金闕智이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파계派系가 복잡하지만 대략 10~11개 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길동 능길, 선부동 우산이, 일동 계향동·주막거리, 월피동 다리피, 대부동 상동·두우현[後介洞]·북리와 시흥시 하중동 등에 세거하였다.

광산김씨

광산김씨光山金氏의 시조는 신라의 왕자 김흥광金興光이다. 조선시대에는 ‘연리광김延李光金’이라고 해서 연안이씨와 광산김씨를 명문 가문으로 높이 추앙했는데, 광산김씨는 울곡 이이의 제자인 김장생의 후손이 조선 후기 주요 관직을 차지하면서 명문 가문에 올랐다.

안산에는 좌리공신으로 광성군光城君에 봉해진 18세 김정金鼎의 셋째 아들 직제학공直提學公 김약시金若時의 후손이 본오동 산우물 등에 세거하였다. 그중 건암健庵 김양택金陽澤은 할아버지 광성부원군 김만기金萬基, 아버지 판서 김진규金鎭圭에 이어 3대째 대제학을 역임하여 당대에 이름을 떨쳤다. 김양택은 영의정에 올랐으나, 죽은 뒤 아들 김하재金夏材가 역신으로 몰려 관작을 추탈당하기도 하였다. 뒤에 복관되어 영돈녕부사로 추증되었다. 건건동에 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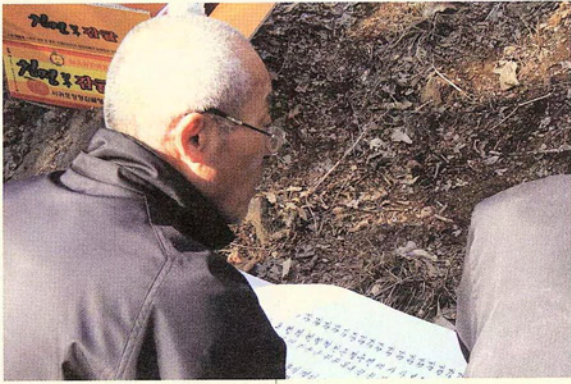


광산김씨 김양택 묘(건건동)

김녕김씨

김녕김씨金寧金氏의 시조는 김시흥金時興으로 경순왕의 7대손이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과 함께 묘청의 난을 평정하여 공신이 된 후 금주군金州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안산의 김녕김씨는 화정동, 목내동, 성곡동과 시흥시 죽울동 등지에 세거하였



화정동 너빌마을 김녕김씨 집성촌의 산신제

다. 이들은 단종복위 가담으로 목숨을 잃은 사육신 김문기(金文起)의 손자인 김충립(金忠立)·김충주(金忠柱)의 후손이다.

김문기는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한 후 함길도도절제사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성삼문·유성원·박팽년 등이 주동한 단종복위 계획이 발각되어 주살당할 때 그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그의 큰아들 김현석(金玄錫)은 아버지와 함께 순절하였고, 김

현석의 장남 김충립의 후손은 죽을동에, 차남 김충주의 후손은 화정동 너빌에서 세거해 왔다.

김해김씨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시조는 김수로이다. 11세 김무력 대에 이르러 크게 번창하였는데 그는 신라 때 각간(角干)을 지낸 뛰어난 무장이었다.

조선 초에 김목경(金牧卿)을 파조로 하는 경파(京派)가 원시동에 처음 입향하였고, 김관(金管)을 파조로 하는 삼현파(三賢派)의 후손인 김중일이 원시동 범직이마을에 입향하여 세거하였다. 원시동 범직이, 목내동 능안, 신길동 셋뿔, 와동 압실, 일동 점섬, 사동 삼리, 본오동, 대부동 동리·풍도리, 그리고 시흥시 죽을동·정왕동 등에 세거하였다.

순천김씨 묘역(와동)



순천김씨

순천김씨(順天金氏)의 시조는 김충(金攄)이다. 안산에서는 9세 문충공(文忠公) 북저(北渚) 김류(金瑬)를 입향조로 하는 문충공파(文忠公派) 후손이 사패지가 있는 와동에 살았다. 김류의 아버지 김여물(金汝物)은 임진왜란 때 신립과 함께 전사한 의병장으로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10세는 아버지와 함께 인조반정

때 공을 세운 김경징(金慶徵)이고 11세는 김진표(金震標)이다.

안동김씨

안동김씨(安東金氏)의 시조는 김방경(金方慶)으로 고려에서 삼중대광(三重大匡) 중贊에 올랐고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졌다. 여말선초 인물인 5세 전서공(典書公) 김성목(金成牧)과 5세 익원공(翼元公) 김사형(金士衡)의 후손이 각기 파를 달리하여 고잔동·외동·목내동 등에 세거하였다.

언양김씨

언양김씨(彦陽金氏)의 시조는 신라 경순왕의 일곱째 아들 김선(金鐔)이다. 그가 언양군(彦陽君)에 봉해진 이후 이를 관(貫)으로 삼았다. 8세 김취려(金就礪)는 고려에서 문하시중(平章事)을 지냈다. 19세 김건(金鍵)의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였다. 그의 호는 삼청일로(三清逸老)이고 덕원부사·홍문관(弘文館)제학을 지냈다. 세거지는 양상동이다.

의성김씨

의성김씨(義城金氏)의 시조는 김석(金錫)으로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이다. 중시조 김용비(金龍庇)를 1세로 하여 5세 문절공(文節公) 김용초(金用超)를 파시조로 하는 파와 김용비의 동생 김용필(金龍弼)을 파시조로 하는 모재사재파(慕齋思齋派) 등 2개 파가 안산에 세거하였다.

안정나씨

안정나씨(安定羅氏)의 시조는 고려 공민왕 때의 문하시중을 지낸 안천부원군(安川府院君) 나천서(羅天瑞)이다. 안산 입향과 세거는 8대손 나운침(羅允枕)에서 시작되었다. 건건동(建健洞) 나봉산(羅奉山)에 선영이 있다. 나운침의 아들 나급(羅級)은 임진왜란 때 한산군수(杆山郡守)와 공주목사(公州牧使)를 역임하면서 난리에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강화에 힘썼다. 선

조로부터 산과 토지를 하사받았는데, 이후 그 산을 나봉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건건동에 세거지가 있다.

의령남씨

의령남씨(宜寧南氏)의 시조는 신라 경덕왕대의 영의공(英毅公) 남민(南敏)으로 이후 본관이 영양·의령·고성 등으로 분파되었다. 그중 의령남씨는 밀직공(密直公) 남군보(南君甫)를 1세로 한다. 8세 부정공(副正公) 남칭(南僞)과 간성공(杆城公) 남구(南倅)의 후손이 본오동 산우물 등에 세거하였다.

교하노씨

교하노씨(交河盧氏)의 시조는 노오(盧塢)로, 당(唐)에서 한림학사를 역임하고 신라로 건너온 도시조(都始祖) 노수(盧穗)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교하백(交河伯)에 봉해졌다. 교하노씨는 선부동 달미, 대부동 동리 등에서 세거하였다.

사천목씨

사천목씨(泗川睦氏)의 시조는 목효기(睦孝基)이다. 안산의 목씨는 11세 현헌공(玄軒公) 목세평(睦世枰)의 후손이다. 목세평의 아들인 목첨(睦詹)은 목수흠(睦守欽), 목서흠(睦叙欽), 목장흠(睦長欽), 목대흠(睦大欽)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둘째 목서흠의 다섯째 아들 목내선(睦來善)의 후손과 넷째 목대흠의 후손이 양상동 옷버대 등에 세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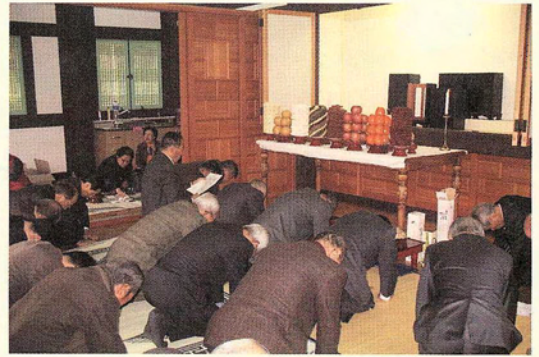
여흥민씨

여흥민씨(驪興閔氏)의 시조는 중국 사신으로 고려 중기에 온 민칭도(閔稱道)이며 안산의 민씨는 16세 입암공(立岩公) 민제인(閔齊仁)의 후손이다. 민제인의 현손인 민광훈(閔光勳)의 아들 민시중(閔蓄重)의 후손이 팔곡동·초지동·선부동·부곡동 등

에 세거하였다. 다른 파로는 12세 민대생(閔大生)의 묘가 15세기 중반에 팔곡동에 조성되면서 세거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팔곡일동 선학골·남산뜰·능앞 등에 세거하였다.

밀양박씨

밀양박씨(密陽朴氏)의 시조는 신라 경명왕의 맏아들 밀성대군(密城大君) 박언침(朴彦沈)이다. 안산의 밀양박씨는 고려 때 인물로 사문진사과의 파조인 박원(朴元)의 후손이다. 밀양박씨는 원곡동 양지마을, 원시동 시골, 초지동 둔배미, 화정동 고주물, 사동 삼리 등지에 세거하였다.



팔곡일동 여흥민씨 시제(2010)

함양박씨

함양박씨(咸陽朴氏)의 중조(中祖)는 박선(朴善)이다. 안산에는 8세 문제공(文齊公) 박충좌(朴忠佐)의 둘째 아들 박정(朴旼)의 후손이 세거한다. 그중 중종 때 예조참판을 지낸 15세 박유(朴瑜)의 둘째 아들 박여헌(朴黎獻)의 묘가 선부동에 있어 실질적인 세거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선부동 모골·정지막골 등에서 세거하였다.

달성서씨

달성서씨(達城徐氏)의 원조(遠祖)는 서한(徐閑)이다. 안산의 달성서씨는 14세 약봉 서성(徐濬)의 후손으로 주로 선조의 부마인 달성위(達城尉) 서경주(徐景雱)의 직계손이다.

창녕성씨

창녕성씨(昌寧成氏)의 시조는 성인보(成仁輔)이다. 10세 성완(成玩)의 4명의 아들이 각기 파조가 되었는데, 이 중 11세 감찰공 성희적(成希赤)의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

였다. 성희적의 계자系子 사암思菴 성세장成世章은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으로 1540년(중종 35)에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544년 헌납에 오른 이후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고, 1550년(명종 5)에 춘추관편수관으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와동과 고잔동에 세거하였다.

진천송씨

진천송씨鎭川宋氏의 시조는 신라시대 대아찬을 지낸 송순공宋舜恭이다. 그 후 세계가 흩어지고 일부가 빠져 그의 9대손 송광우宋匡祐를 1세로 한다. 5세 좌랑공佐郎公 송윤종宋胤宗의 아들 송평宋平의 묘가 시흥시 물왕동에 있어 이후의 세거 기반이 되었다.

영월신씨

영월신씨寧越辛氏의 본관은 영산靈山과 영월寧越 2개 본이며, 양쪽이 같은 연원의 분파로 영산신씨가 큰집으로 알려져 있다. 시조는 고려 고종 때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신경辛鏡이며, 그의 선대는 당나라 사람으로 신라 경덕왕 때 신라에 귀화하였는데, 그 후 신경이 다시 와서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신씨의 세계는 신경의 8대손에서 상장군파上將軍派 · 덕재공파德齋公派 · 초당공파草堂公派 · 판서공파判書公派 · 부원군파府院君派 등 5개 파로 갈리는데, 앞의 3개 파는 영산신씨이고 나머지가 영월신씨이다. 안산의 영월신씨는 성포동 성머리, 대부동 소자마을 등에 세거하였다.

신길동 평산신씨 시제(2011)



평산신씨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는 왕건을 도와 고려 개국에 공을 세운 장절공莊節公 신승겸申崇謙이다. 고려 공민왕 때 지신사를 지낸 15세 사간공思簡公 신희申浩의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였다. 21세 신점申點은 1592년(선

조 25) 명명에 사은사로 갔을 때 본국의 임진왜란 소식을 듣고 청병講兵한 공로로 선무공신 2등이 되었고 후에 평성부원군에 책봉되었으며, 신길동에 묘가 있다. 대부동 동리·남리, 시흥시 물왕동 등에 세거하였다.

광주안씨

광주안씨廣州安氏의 시조는 안방걸安邦傑이다. 안산의 광주안씨는 20세 감찰공 監察公 안종생安從生의 후손이다. 30세 안명익安命益의 묘를 고잔동에 쓰면서 이즈음부터 고잔동에 세거한 것으로 보인다. 안종생의 후손 중 조선 후기 실학자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은 광주廣州 덕곡(덕골)에 살았다.

순흥안씨

순흥안씨順興安氏의 시조는 안자미安子美이며, 그의 증손은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이다. 안산의 순흥안씨는 9세 안종약安從約의 2남 찬성공贊成公 안경安璟과 안종약의 동생인 침추공僉樞公 안종의安從義의 후손이다. 병조판서에 증직된 안경의 다섯째 아들 안인후安仁厚의 후손은 원곡동과 시흥시 거모동에, 안종의의 후손인 침추공과는 14세 안선安璿 이후 시흥시 월곶동에 세거하였다.

파주염씨

파주염씨坡州廉氏의 시조는 삼한공신인 염형명廉邢明이며, 증시조는 고려 공민왕과 우왕 때 문하시중과 곡성부원군을 지낸 충경공 염제신廉梯臣이다. 안산의 파주염씨는 국과공 염국보廉國寶의 후손으로 조선 숙종대에 이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포동 성머리, 월피동 다리피 등에 세거하였다.

월피동 파주염씨 세장지



동복오씨

동복오씨(同福吳氏)의 시조는 고려 고종 때 동복군(同福君)에 봉해진 오현좌(吳賢佐)이다. 고려 말기 왜구를 격파한 무신 오언(吳彦)의 묘가 원곡동 땃골에 들어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원곡동 땃골, 선부동 거미울 등에 세거하였다.

해주오씨

해주오씨(海州吳氏)의 시조는 오인유(吳仁裕)이다. 5세 오승(吳昇)의 아들 오효성(吳孝成)·오효순(吳孝純)·오효충(吳孝沖) 대에 와서 파가 갈렸는데, 오효순과 오효충의 후손들이 각각 팔곡동과 사사동에서 세거해 왔다. 오효충의 후손 중 현종의 부마가 된 오태주(吳泰周)와 문장으로 이름난 오원(吳瑗)의 묘가 사사동에 있다.

원주원씨

원주원씨(原州元氏)의 시조는 원경(元鏡)이며 원극유(元克猷)·원익겸(元益謙)·원충갑(元沖甲)을 1세로 삼는 3갈래가 있다. 안산의 원주원씨는 원익겸을 1세로 한다. 10세 문정공(文靖公) 원효연(元孝然)의 후손과 음성공(陰城公) 원효이(元孝而)의 후손이 안산에 살았다. 원효연의 후손으로 21세 원계영(元啓英)이 영조 연간에 예조참판을 지냈다. 세거지는 화정동과 시흥시 거모동이다.

문화유씨

문화유씨(文化柳氏)의 시조는 유차달(柳車達)이다. 11세 지후사공(祗候使公) 유인수(柳仁修)의 후손과 11세 유인기(柳仁琦)의 증손인 14세 충경공(忠景公) 유양(柳亮)의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였다. 유인수의 후손으로 19세 유잠(柳潛)과 20세 유자신(柳自新)의 묘는 시흥시 능곡동에 있으며, 시흥시 산현동·목감동·거모동·군자동 등에 세거하였다. 또한 유인수의 아우 유돈(柳墩)의 12대손 유상(柳瑤)과 그 아들 유중립(柳重臨)의 후손이 고잔동에 세거하였다.

진주유씨

진주유씨 晋州柳氏의 시조는 유정 柳挺이다. 8세 유광보 柳光甫를 중시조로, 10세 유종식 柳宗植을 파시조로 하는 진주유씨 사복시정공파 司僕寺正公派의 17세로 선조의 부마인 유적 柳頤이 군내면 부곡리(현 상록구 부곡동)에 사패지를 받으면서 입향하였다. 이 집안의 일부는 후에 충북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에 향제를 두지만 나머지는 대대로 안산에 머물렀다. 이들이 세운 청문당 淸聞堂에는 많은 책이 비치되어 있어 이를 매개로 일대 기호남인들의 구심점이 되었다고 한다. 부곡동의 개멸·신촌·시랑골·정재골 등에 세거하였다.



진주유씨 청문당 시제(2010)

파평윤씨

파평윤씨 坡平尹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를 도와 공을 세운 태사공 太師公 윤신달 尹莘達이다. 18세 충경공 忠景公 윤사로 尹師路의 후손과 12세 소부공 少府公 윤암 尹諳, 15세 정정공 貞靖公 윤번 尹璠의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였다.

파평윤씨는 대개의 경우처럼 조선조에 안산으로 들어온 외래사족이다. 윤사로는 1436년(세종 18)에 세종의 딸 정현옹주와 혼인하여 영천위 鎭川尉가 되었고 1455년에는 세조의 즉위를 도와 좌익공신이 되었다. 이조판서를 지낸 8대손 윤강 尹絳과 아들 두포공 杜浦公 윤지선 尹趾善, 동산공 東山公 윤지완 尹趾完, 양강공 楊江公 윤지인 尹趾仁 때 가문이 크게 번창하였다. 다른 충경공파로는 24세 지산공 芝山公 윤민일 尹民逸의 후손이 있다. 성곡동, 원시동, 고잔동, 초지동, 월곡동, 선부동 우산이, 월피동 부루지와 시흥시 정왕동·산현동 등에 세거하였다.



윤섭과 윤지완의 위패를 모신 영평사(鈴平祠)

경주이씨

경주이씨慶州李氏의 시조는 이알평李諲平으로 신라의 좌명공신이었다. 박혁거세 때 아찬阿餐에 올랐고, 32년(유리왕 9) 양산촌楊山村 이씨李氏로 사성賜姓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이씨 중 중국에서 귀화한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경주이씨 이알평의 후손에서 분관한 것이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묘지를 쓸 때 이거명李居明 이후의 세계를 적은 것이 연유가 되어 그가 중조가 되었다. 안산에는 부곡동 시랑골, 대부동 동리 등에 세거하였다.

단성이씨



일동 단성이씨 묘역

단성이씨丹城李氏의 시조는 고려에서 평장사를 역임한 이현李峴이다. 중시조는 7세 이영보李永寶로 조선시대에 호조판서를 역임하였고, 부인 남평문씨가 성태산城台山에 묘역을 정하였다.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예조참판을 지낸 이작李紱이고 둘째 아들은 감찰을 지낸 이윤李綸이다. 안산의 단성이씨는 이윤의 후손으로 일동에 세거하였다.

덕수이씨

덕수이씨德水李氏의 시조는 고려 때 거란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웠던 이돈수李敦守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율곡 이이와 충무공 이순신이 있다. 이돈수의 10대손 적성공積城公 이자하李自夏는 중종 때 기묘사화 이후 벼슬을 버리고 안산으로 귀향하였는데, 그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였다. 이자하의 아들 이치李致가 식년문과 을과에, 손자 이사성李師聖이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고잔동 마실, 시흥시 산현동 등에 세거하였다.

성주이씨

성주이씨 星州李氏의 시조는 신라 문성왕 때 이부상서를 지낸 이순유李純由로 경주이씨 시조 이알평의 32대손이다. 증시조는 이장경李長庚으로 그의 손자 이승경李承慶이 원元에서 벼슬을 하면서 공을 세워 원 황제가 이장경을 농서군공隴西郡公으로 추봉하였다. 따라서 농서이씨隴西李氏라고도 하였는데, 충렬왕 이후 성주목星州牧의 지명을 따라 성주이씨라고 하였다. 이장경의 5대손 문경공文景公 이직李稷의 손자인 이함령李咸寧과 이정령李正寧의 후손이 와동 등에 세거하였다.

신평이씨

신평이씨 新平李氏의 시조는 고려 때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낸 이덕명李德明으로 단종 때 홍문관교리를 지낸 10세 이간李幹의 둘째 아들 승지공承旨公 이계중李季宗의 둘째 이세건李世健과 셋째 이세순李世純의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였다. 이세건은 문과에 급제한 후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장하동, 화정동과 시흥시 장현동·논곡동 등에 세거하였다.

여주이씨

여주이씨 驪州李氏는 여흥이씨驪興李氏라고도 한다. 여주이씨는 시조를 달리하는 3개 파가 있는데, 안산에 세거한 시조는 인용교위仁勇校尉를 지낸 이인덕李仁德이다. 11세 경헌공敬憲公 이계손李繼孫의 후손들 중 특히 16세 좌찬성 이상의李尙毅의 후손이 번창하였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을 비롯한 그의 후손이 일동 점성·주막거리, 성포동 독주골·성머리 등에 세거하였다.



여주이씨 성호 이익의 위패를 모신 첨성사(일동)

연안이씨

연안이씨延安李氏의 시조는 당의 장수 이무李茂이고 후손 중 이현려李賢呂를 1세로 한다. 9세 연성부원군 이석형李石亨은 연안이씨의 번성을 가져 온 중흥조이다. 그의 5대손으로 사복시정에 증직된 14세 이화李樞의 후손이 성포동 등에 세거하였다.

용인이씨

용인이씨龍仁李氏의 시조는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이길권李吉卷이다. 20세 참의공參議公 이종형李宗衡의 후손이 장상동 등에 세거하였다. 30세 이숭호李崇祐, 31세 이재학李在學, 32세 이규현李奎鉉, 33세 이원명李源命 4대가 문과에 급제하였다. 문정공文靖公 이원명은 이조판서와 양관兩館(홍문관·예문관)의 제학을 역임하였다.

원주이씨

원주이씨原州李氏의 시조는 안일호장 이춘계李椿桂이다. 13세 사용공司勇公 이월李越의 후손으로 무과 출신인 18세 이극량李克諒 이후 선부동 등에 세거하였다. 무과 출신이 많은 집안이다.



전의이씨 묘역(신길동)

전의이씨

전의이씨全義李氏의 시조는 고려 태조의 건국을 도와 공신이 된 태사전산후太師全山侯 이도李樾이다. 8세 전서공典書公 이화李華의 후손이 신길리에 세거하였다. 12세 이계손李季孫 등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현 단원구 신길동인 큰벙골과 작은벙골에 대성을 이루며 세거하였으나 택지로 개발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

전주이씨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시조는 신라 때 사공司功을 지낸 이한李翰이다.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시조로부터 22세, 즉 이한의 21세이다. 전주이씨는 100여개 파가 있을 정도로 분파와 시조가 매우 많고 복잡한데 그중 안산에 세거한 파는 진남군鎭男君파, 양녕대군讓寧大君파, 효령대군孝寧大君 정효공파, 익령군益寧君 소강공파, 임영대군臨瀛大君 정간공파, 수춘군壽春君 안도공파, 계성군桂城君 희정공파, 익양군益陽君 순평공파, 양원군楊原君 정혜공파, 해안군海安君 정희공파, 영양군永陽君 성도공파,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파, 신성군信城君 충정공파, 경창군慶昌君 효현공파, 인흥군仁興君 정효공파 등 15개 파이다.

안산에는 목내동 능안·배나물, 성곡동 골우물, 와동 동장리, 선부동 우산이, 고잔동 고로리·마실·안터, 본오동 각골·막고지·산우물, 월피동 부루지, 이동 솔이웃·고잔·음택이 등에서 세거하였다.



전주이씨 세장지(초지동)

평창이씨

평창이씨平昌李氏의 시조는 고려 때 광록대부 태사를 지낸 이광李匡으로, 12세 익평공翼平公 계남季男 이후 부곡동과 시흥시 산현동·조남동 등에 세거하였다. 특히 사헌부감찰을 지낸 17세 이숙李瑛의 후손 중에 문과급제자가 많이 나왔다.

한산이씨

한산이씨韓山李氏의 시조는 이윤경李允卿이다. 가정稼亭 이곡李穀과 목은牧隱 이색李穡 부자는 각기 6세와 7세이다. 이색의 손자 광목공光牧公 이숙야李叔野의 후손 중 일부가 장상동 등에 세거하였다.

나주임씨

나주임씨羅州林氏의 시조는 고려 충렬왕 때의 인물인 임비林庇이다. 16세 정자 공正字公 임복林復의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였다. 그의 현손인 20세 임세검林世儉의 묘가 와동 옛 와평리에 있었다. 임세검의 아들 임상정林象鼎은 《자오록自娛錄》을 지었다.

평택임씨

평택임씨平澤林氏는 당의 한림학사 임팔급林八及을 시조로 하고 있다. 그는 동래 8학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하였으나 그 후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 고려 말 세자전객령 겸 연희궁부사를 지낸 임세춘林世春을 1세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 오는 전객령계典客令系와 고려 말에 삼중대광 평성부원군이 된 임언수林彦脩를 1세조로 하는 충정공계忠貞公系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부동 고유지 등에 세거하였다.

풍천임씨

풍천임씨豐川任氏의 시조는 임온任溫이다. 6세 임주任澍의 두 아들인 허재공虛齋公 임자송任子松과 화재공和齋公 임자순任子順의 2개 파가 안산에서 세거하였다. 허재공파에서는 14세 임열任說의 후손이 현달하였다. 23세 임길상任吉常의 묘가 장상동 동막골에 있으며, 화재공파 18세 임진화任震和의 묘가 장상동 장곡獐谷(노리울)에 있다.

덕수장씨

덕수장씨德水張氏의 시조는 장순룡張舜龍이다. 안산의 덕수장씨는 8세조 유정공柳亭公 장옥張玉의 후손으로 증손 장운익張雲翼은 형조판서를 지내고 덕수부원군에 봉해진 인물이다. 효종의 장인, 즉 인선왕후의 아버지인 장유張維는 장운익

의 아들이며 장유의 아들 장선장張善徵도 예조판서에 오르는 등 그 이후에도 가문이 번창하였다.

장유는 광해군 때 어지러운 정치를 피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안산군 마유면 장곡 매골(웅곡, 시흥시 장곡동)로 낙향하여 농사를 지으며 안산에 관한 많은 시와 글을 남겼다. 장유의 동생인 장신張紳도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으며, 그의 후손이 와동, 고잔동, 시흥시 장곡동 등에 세거하였다.

안동장씨

안동장씨安東張氏의 시조는 장정필張貞弼이다. 안산의 안동장씨는 화양공파다. 이들이 세거해 온 곳은 건전동 아랫삼천리(장촌)이다. 입향조는 장한도의 큰아들인 장세현으로 300여 년 전에 입향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장촌에는 타성은 3~4호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일가로 30호를 유지하고 있다.



안동장씨 묘역(건전동)

인동장씨

인동장씨仁同張氏의 시조는 장금용張金用이다. 고려 때 삼중대광 신호위상장군을 역임했고, 그의 아들 장선張善도 고려 문종 때 금오위상장군을 지냈다. 여헌旅軒 장현광의 유록에는 장금용을 시조로 모시는 이유가 선대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선조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13세 장백張伯은 고려 우왕 때 태상경太常卿으로 문하시중도첨의밀직사를 역임하였는데, 후에 좌리공신에 녹훈되어 옥산군玉山君에 봉해졌다. 이에 후손은 장백을 중조로 삼아 옥산을 본관으로 하였는데 조선 말기 옥산이 인동仁同으로 바뀐에 따라 본관을 인동으로 고쳤다. 예전 그대로 옥산을 본관으로 쓰는 후손도 있다. 안산에서는 와동에 세거하였다.

나주정씨

나주정씨羅州丁氏의 시조는 정윤종丁允宗이다. 12세 월헌공月軒公 정수강丁壽崗의 후손으로 홍문관수찬을 지낸 17세 정언벽丁彦璧 때 강원도 원주에서 안산으로 이주하여 세거했다. 정언벽의 아들 정시윤丁時潤은 정도태丁道泰·정도복丁道復·정도제丁道濟·정도길丁道吉 4형제를 두었는데, 정도태의 후손이 다산 정약용丁若鏞이다. 안산에는 정도제의 후손이 양상동 옷버대와 신길동 셋밭 등에 세거하였다.

동래정씨

동래정씨東萊鄭氏의 시조는 신라 때 호장 정희문鄭繪文이며, 후손인 정지원鄭之遠을 1세로 한다. 14세 정절공貞節公 정갑손鄭甲孫의 후손이 안산에서 대를 이어왔다. 정갑손은 1450년(세종 32) 좌참찬 겸 이조판서에 이르렀으며, 맏딸이 문종의 후궁으로 들어가 소용昭容이 되었고, 중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한편 유자신의 처 동래정씨는 광해군의 장모인데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하고 남편 사후에 예를 따라 상을 치러 열녀가 되었다.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유자신과의 합장묘는 시흥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일정씨

연일정씨延日鄭氏는 시조를 달리하는 몇 개의 파로 나뉘는데, 안산의 연일정씨는 고려 때 추밀원사를 지내고 문묘에 제향된 정습명鄭襲明을 시조로 한다. 정습명의 후손 중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가 유명하다. 안산에서 세거한 양명학자 정제두鄭齊斗는 포은의 11대손이다. 초지동 둔배미와 시흥시 화정동 가래울 등에 세거하였다.

초계정씨

초계정씨草溪鄭氏의 시조는 고려 문종 때의 인물인 정배걸鄭倍傑이다. 안산의

초계정씨는 8세 대제학공大提學公 정선鄭僖의 후손이다. 16세 정종영鄭宗榮은 우찬성에 오르고 청백리로 뽑혔으며 팔계군八溪君의 군호를 받았다. 부곡동 시랑골·신촌, 장상동, 월피동 다리피 등에 세거하였으며, 월피동 부루지(부로지)에 선산이 있다.

하동정씨

하동정씨河東鄭氏의 시조는 고려 때 평장사를 지낸 정도정鄭道正이다. 영의정을 지낸 10세 정인지鄭麟趾의 셋째 아들 장정공莊靖公 정승조鄭崇祖의 묘가 시흥시 광석동에 있어 안산 세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원시동 범직이에 세거하였다.

해주정씨

해주정씨海州鄭氏의 시조는 정숙鄭肅이며 후손 정언鄭瑄을 1세로 삼는다. 문중의 사위가 된 5세 영양위寧陽尉 정중鄭棕의 후손이 안산에 세거하였는데, 10세 정효준鄭孝俊의 셋째 아들 정석鄭楫과 넷째 아들 정박鄭樸의 후손이다. 정석의 후손인 15세 정인조鄭麟祚, 또는 정석의 장손 정세령鄭世寧이 부곡동에 거주하던 진주 유씨 유명견柳命堅의 사위가 되면서 그 후손이 안산에 세거해 온 것으로도 추정된다. 정효준과 같은 10세인 정등鄭騰의 후손도 안산에 세거하였다. 해주정씨는 원곡동 풍전·별당과 시흥시 거모동·장곡동 등에 세거하였다.

순창조씨

순창조씨淳昌趙氏의 시조는 조장趙璋이다. 순창의 옛 이름이 옥천玉川이라 옥천 조씨라고도 한다. 고려 말 절신으로서 목은牧隱·포은圃隱·도은陶隱·야은冶隱과 함께 ‘오은五隱’으로 불린 농은農隱 조원길趙元吉과 세종 때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한 조숭문趙崇文, 유성룡柳成龍의 사위로 인조 때 이조참관을 지낸 조수의趙壽益 등이 있다. 안산에는 7세 찰방공察訪公 조지륜趙智崙의 후손이 세거하였다.

양주조씨

양주조씨楊州趙氏의 시조는 조잠趙岑이다. 4세 문강공文剛公 조말생趙末生의 둘째 아들 조선趙選과 셋째 아들 조근趙瑾의 후손과 선조 때 우의정을 지낸 조정趙挺, 인조 때의 학자 조상우趙相禹의 아들 조이병趙爾炳 등이 입향하면서 세거하였다.



창녕조씨 입향조 조일상 묘 (건건동)

창녕조씨

창녕조씨昌寧曹氏의 시조는 조계룡曹繼龍으로, 신라 진평왕의 사위라 한다. 안산에서는 건건동 윗삼천리(조촌)에 세거하였다. 입향조는 조선 숙종대의 조일상으로, 장희빈을 몰아내는 데 일조한 인물이라고 한다. 현재 20여 가구가 살고 있다.

풍양조씨

풍양조씨豐壤趙氏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문하시중평장사를 지낸 조맹趙孟이다. 안산의 풍양조씨는 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와 원리에 세거해 온 파의 하나로 좌의정을 지낸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후손이다. 대제학을 지낸 송곡松谷 조복양趙復陽의 동생 도산公道山公 조내양趙來陽의 묘가 건건동 고등골(적동)에 있어 그 후손이 건건동 등에 거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오동 산우물·막고지, 장하동 별말, 율피동 다리피, 건건동 고등골, 고잔동 당골·태봉, 선부동 거미울 등에 세거하였다.

한양조씨

한양조씨漢陽趙氏의 시조는 조지수趙之壽이다. 8세 판관공判官公 조운명趙云明의 후손이 안산에 살았다. 13세 조빈趙賓은 인조반정 후 문과에 급제하여 좌승지에 올랐고 병자호란 때는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 그의 손자 15세 조서趙瑞의 묘가

시흥시 죽율동에 있으며, 고잔동, 일동, 원곡동 양지마을, 시흥시 죽율동 등에 세거하였다.

신안주씨

신안주씨新安朱氏의 시조는 송宋의 신안현 사람인 주잠朱潛인데, 그는 주자朱子の 증손으로 송의 사직이 위태롭게 되자 아들 주여경朱餘慶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 망명해 와서 나주에 자리 잡아 살았다고 한다. 안산에는 본오동 각골과 사동 뒷골 등에 세거하였다.

경주최씨

경주최씨慶州崔氏는 신라가 건국되기 전 6촌의 하나인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 촌장 소벌도리蘇伐都利를 원조로 하고, 최치원崔致遠을 시조로 하고 있다. 최씨 성은 신라 3대 왕인 유리왕이 고허촌장에게 내렸다고 전한다. 안산에는 목내동 능안, 사사동, 일동 주막거리, 고잔동 절골말 등에 세거하였다.

양주최씨

양주최씨楊州崔氏의 시조는 고려 공민왕 때 양주군楊州君에 봉해지고 문경文敬이란 시호를 받은 최억崔億이다. 안산의 양주최씨는 독선당獨善堂 최훈崔渾이 조부를 모시고 사동 감자골로 은거한 이래 분대·긴곶·삼밭길·항가울 등으로 퍼지면서 일대에 세거하였다. 안산에는 최훈의 다섯 아들 대에 와서 번창하였는데, 큰아들 최홍부崔弘溥의 후손 일부와 셋째 아들 최홍주崔弘澍와 넷째 아들 최홍개崔弘溉의 후손이 사동에서 세거하였다. 사동에서는 양주최씨를 ‘주다리[珠橋里] 최씨’라고도 불렀다.



양주최씨 시향제(사동, 2010)

전주최씨

전주최씨全州崔氏의 시조는 최순작崔純爵이다. 10세 경절공敬節公 최사강崔士康의 후손이 안산에 살았으나 자손이 퍼지지는 못했다. 최사강의 손자인 최도일崔道一의 후손이 장상동과 시흥시 월곶동 등에 세거하였다.

해주최씨

해주최씨海州崔氏의 시조는 최온崔溫이다. 9세 충헌공忠憲公 최유엄崔有滄의 5대손이 세종 때 집현전부제학으로 학자이면서 청백리였던 최만리崔萬理이다. 그의 둘째 아들 최정崔靖의 후손이 양상동 옷버대, 고잔동 당골, 신길동 큰뱅골 등에 세거하였다.

진주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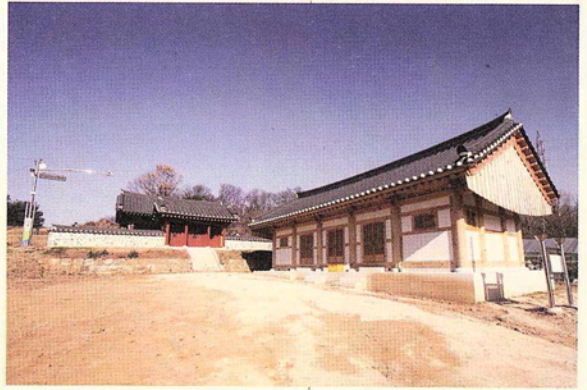
진주하씨晉州河氏의 시조는 고려 현종 때 상서공부시랑을 지낸 하공진河拱辰이다. 인구는 많지 않으나, 조선시대에 2명의 영의정을 비롯하여 많은 문인과 학자를 배출하였다. 역사상의 주요 인물로는 하윤河潤·하연河演·하위지河緯地 등이 있으며, 명종 때 당대의 '8문장'으로 문명을 날린 하응림河應臨이 있다. 안산에서는 원시동 시골에 세거하였다.

청주한씨

청주한씨淸州韓氏는 세계世系의 출발을 기자조선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성씨의 하나이다. 시조는 기자의 후예 우량의 32세손으로 고려 태조 때 개국벽상공신에 오른 태위공太尉公 한란韓蘭이다.

안산에 세거한 청주한씨는 5개 파가 있는데, 이 중 14세 문정공文靖公 한계희韓繼禧의 6대손 서평부원군 한준겸韓浚謙의 후손이 번창하였다.

한계미韓繼美는 세조 때 이조판서와 영중추부사를 지냈고 서원부원군에 봉해진 인물로 후손이 시흥시 거모동에 세거하였으며, 한계희의 자손도 거모동에 세거하였다. 한계희의 아우 한계선韓繼善의 후손은 그의 아들인 감찰공 한근韓謹의 묘를 정한 이후 참판공파로 건건동에서 세거하였다. 한확의 첫째 아들 공안공恭安公 한치인韓致仁 후손은 손자인 부호군副護軍 한세좌韓世佐의 묘를 사사동에 정한 이후로 그곳에서, 한확의 아우 한진韓鎭의 넷째 아들로 이조참의를 지낸 한충지韓忠智의 후손은 이동 솔이웃[松湖] 등에서 세거하였다.



청주한씨 한응인의 위패를 모신 백줄재(사사동)

양천허씨

양천허씨陽川許氏의 시조는 선문宣文으로 고려 태조가 후백제를 공격할 때 군량미를 수송해 준 공로로 공암촌주孔巖村主가 되었다. 안산에 세거한 양천허씨는 허중許琮을 중시조로 하는 교위공파校尉公派인데 인조 때 병조참의를 지낸 허색許穡의 손자 대에 와동과 고잔동 일대에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남양홍씨

남양홍씨南陽洪氏는 당홍계唐洪系와 토홍계土洪系가 각기 시조를 달리한다. 안산에 세거한 남양홍씨는 당홍계로, 시조는 홍은열洪殷悅이다. 20세 홍춘경洪春卿의 증손으로 경기도관찰사를 지낸 해봉海峰 홍명원洪命元의 5명의 아들 중 둘째 아들 홍처심洪處深과 셋째 아들 홍처윤洪處尹의 자손이 안산에 터를 잡았다. 와동·고잔동·원곡동·원시동·본오동·선부동 등과 대부동 동리·남리·북리 일대에 세거하였다.

정승모 | 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에 집성촌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다. 성씨 집단, 즉 문중의 발달과 집성촌의 형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조선 후기 향촌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배 성씨가 지연과 혈연을 기반으로 촌락을 이룬 곳이 바로 집성촌이다. 이러한 면에서 집성촌은 조선 후기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 향촌과는 달리 도성을 중심으로 관직을 확보한 다양한 성씨의 사대부가 일찍부터 일대에 경저(京邸)와 향제(鄕第)를 마련해 나가면서 근기(近畿) 지역에 정착하였다. 물론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지표로 나타나는 경기 북부의 파주·김포 등의 집성촌과는 달리, 고려시대부터 송도(개성)에 관직을 나갔던 가문이 오랫동안 터를 닦아서 일찍이 집성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 문중조직 형성의 결과로 언급되고 있는 집성촌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삼남지방과 달리 경기지역은 도성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족(士族)이 중앙관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이 있다. 삼남지역 군현은 조선 중기 이후 특정한 정치적 당파가 그 지역 세력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경기도의 경우는 노론·소론·기호남인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존했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일제강점기 켄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조선의 취락(朝鮮의聚落)》에서 보면, 집성촌은 한국사회의 매우 전형적인 촌락으로 자리 잡았다. 1930년 임시국세조사(臨時國稅調査)의 일환으로 조사된 자료서는 총 촌락의 수가 2만 8,336개인데 그중에서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는 ‘동족부락’이 1만 4,672개에 달하였다.¹⁾ 그만큼 집성촌은 일제강점기 때 큰 비중을 차지한 촌락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성촌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형성된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경우도 많이 있어 그러한 촌락은 민촌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것은 집성촌의 현장조사에서 세밀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산지역 집성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1970년대 후반 이후 안산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안산지역 촌락

1) 善生永助, 《朝鮮の姓》, 1934, 55쪽.

의 모습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인구 이동에서 전근대 사회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구舊 촌락 출생 인구가 주변 도시로 끊임없이 진출하고 토지 경작이 아닌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면서 전근대 집성촌의 사회·경제적 측면은 현대사회에서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집성촌’이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시기적·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음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서는 조선 후기 안산지역 집성촌의 모습을 고증하고 현재까지의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료·현지 촌락·제보자 등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먼저 밝힌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산지역의 집성촌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동족마을의 형성과 변화

1. 동족마을 성립과 전개

동족마을은 곧 ‘지연地緣에 기초한 문중조직 형성’의 결과가 나타난 현상이다. 지연은 입향 이후의 분가 방식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의 반복과 그로 인해 증가한 동족원에 대한 조직화를 가능케 한 장치 또는 원리가 바로 종법宗法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배경에는 농업생산력을 포함한 경제적 조건들이 그 변수가 되고 있다.

종법이란 본래 제후의 별자別子를 종宗으로 하여 일가를 세우게 하고 그 일가로부터 발생하는 소종小宗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된 고대 주周의 제도이다. 이러한 특정 신분의 가계家系 계승 장치가 지배계층으로 일반화한 것은 우리나라(조선)나 중국(남송)이나 마찬가지로, 양국의 농업생산력 발달 수준에 따라 2~3세기의 편차를 갖는다. 종법은 제사를 계승하는 입사立嗣의 원칙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수족收族의 기능도 한다. 종법은 인구재생산의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동족마을이 형성되기까지는 인구재생산 방식인 종법의 시행이 선행되었으

며, 입향조의 입향은 종법에 의한 점진적인 인구재생산의 출발점이 되었다.

동족마을을 형성한 이들은 주로 조선 초·중기에 입향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세습된 신분과 동족조직을 배경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외래사족으로 분류된 세력들이다. 그러나 조선 이전에 이미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토성土姓들이나 임진왜란 이후에 입향한 성씨들이 동족마을의 기반을 닦아 나간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조선에 들어와서 토성들의 향방은 사족으로의 전환을 통해 계속해서 그 세력을 유지한 경우와 외래사족에 밀려 향권을 상실한 채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사라진 경우 등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지역 내에서의 분가分家 또는 분기分岐를 통해, 후자의 경우는 지역 밖으로의 이거移居를 통해 가계를 유지하고 동족마을의 기반을 마련해 간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토성들의 추이를 지역적 범위를 넓혀서 보게 되면 결국은 외래사족의 입향 추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 초기부터 주요 현상으로 나타난 향촌사회 지배세력들의 이와 같은 추세, 즉 다른 지역으로의 이거와 입향,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분가와 분기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계속된다. 단지 시대가 내려올수록 이거와 입향보다는 분가와 분기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경작지 확대 등을 포함한 이들의 지역 기반의 안정화와 관련된 듯하다.

이와 같은 지배층들의 추이와는 달리 동족마을을 구성한 일반 백성들의 입향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다. 이때의 ‘향’은 지역단위보다는 마을단위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전쟁은 무엇보다도 거주지의 이동과 더불어 봉건적 속박으로부터의 이탈 기회를 높여 주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이 갖는 효력은 그보다 훨씬 후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임진왜란 당시에 살았던 선조들에 대한 전공戰功의 추인追認 여부에 따라 동족마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가능했으며, 역으로 지연적 동족결합을 통해 추인을 받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2. 종법의 시행과 동족마을의 변화

조선에 종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은 문중 및 동족마을의 형성과 발전에 커다란 변수가 되었다. 우선 사대봉사四代奉祀의 일반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정당화한 것은 ‘고조유복불가부제高祖有服不可不祭’, 즉 고조에 대해서도 상

복을 입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다는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이 대표적이며, 이재李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도 사감四龕을 설치하고 증조를 잇는 소종小宗인 경우는 서쪽 첫 번째 실을 비워두고 조부를 잇는 소종인 경우는 2개의 실을 비워둔다고 하여 사대봉사를 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사대봉사의 자격을 일반화한 것은 소종의 범주를 확대한 것으로 이에 의해 동고조 팔촌同高祖八寸의 당내친堂內親이 상·제례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기본적인 친속親屬의 단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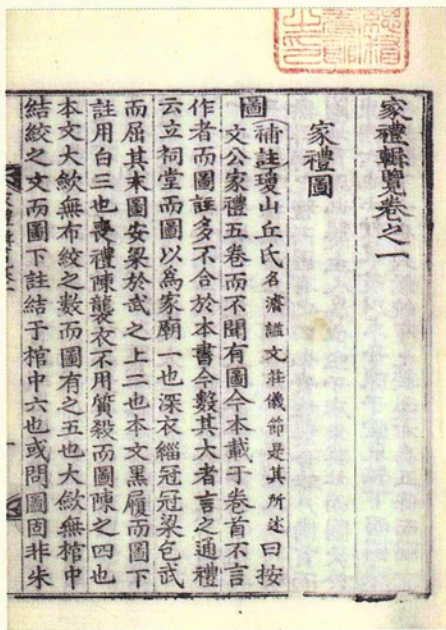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시행된 종법의 여러 특수한 현상들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대·소종의 구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이다. 이미 사대봉사의 일반화로 계고조 지종繼高祖之宗²⁾이 된 대부분의 소종이 다음의 계오대지종繼五代之宗으로 넘어가는 데 따르는 제약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종의 양산量産을 가져오게 되고 특정 문중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의 확대를 이루어 동족마을이 번성하는 결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종법에서는 원래 입후立後 또는 양자제도養子制度는 대중에 한하며, 소종은 입후를 요하지 않고 대가 끊기는 계절繼絶의 경우에는 대종의 조묘祖廟에 반부班祔³⁾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대·소종을 불문하고 양자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적통의 재생산은 대중뿐만 아니라 소종, 즉 사조四祖 안에서도 철저히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이 지켜지는 한 종족원의 수는 늘어나게 되며 최소한 줄어드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소종의 대중화는 이와 같이 계고조지종을 하는 장자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후대의 분기 과정에서 분파한 문중이 결성될 때 소급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수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현상의 하나가 곧 묘제墓祭의 성행이다.

제사는 크게 집 안에서 하는 사제祠祭, 또는 묘제廟祭와 집 밖에서 하는 묘제墓祭로 구분되며, 위도位土에도 제전祭田과 묘전墓田의 2종류가 있다. 묘전은 원래 제전이었던 것을 5대조의 체천遞遷⁴⁾에 따라 제사 장소를 묘廟에서 묘墓로 옮기면서 묘제를 위한 전田으로 전환한 것이다.

제전이 원래 없었던 경우는 새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는 사제와 묘제를 구분하여 기제사 범위인 4대까지는 사당祠堂 혹은 정침正寢에서 제사를 지내고, 5대조부터는 신주를 묘소 앞에 묻는 매안埋安을 하고 나서 묘제를 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는 달리 묘를 흉사凶事로 여기지 않아 조천祧遷⁵⁾ 이전에도 사제와 함께 묘제를 하는 관행이 있었고 제전에서 묘제의 비용까지 제공하는 것이 통례였다. 즉 2가지 행사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천 후

- 2) 고조를 계승하는 종자.
- 3) 자식이 없는 사람의 신주를 조상의 사당에 함께 모시는 것.
- 4) 봉사손(奉祀孫)의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神主)를, 최장방(最長房) 곧 사대손(四代孫) 가운데 가장 항렬이 높은 사람이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옮겨 가는 것.
- 5) 제사를 지내는 대수(代數)가 다 된 조상, 즉 친진(親盡)된 조상을 가묘(家廟)에서 모셔 내는 것.



김장생 (기례집람)

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묘제가 이어지게 되면서 소중이 소멸 또는 분기됨 없이 묘제를 중심으로 오히려 확대되는 대중화 경향을 낳은 것이다.

백세불천(百世不遷)⁶⁾의 부조묘는 종손이 중심이 되고 사당에서 행하는 기제 역시 종자를 중심으로 그 당내친들이 주체가 되지만, 묘제의 경우는 달라 그 주관은 문중성원 각각에게 분산되므로 결국 문중집단이 그 주체가 된다. 친족관계를 설명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그 관계의 차원이 개인인가 집단인가의 여부다. 기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범주의 개념이지만 묘제는 그 기준이 달라 집단의 차원에서 행해진다.

분가와 상속의 관행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인이 속한 친족집단의 결속상태 여하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한 집에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同居共財) 중국과 달리 가산을 분할(分家別產)하여 같은 마을 인근(同村近里)에 거처를 정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이는 부계상속분의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이를 배경으로 경제력을 확보한 자들이 시작하였지만 곧 이상적인 분가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분가하더라도 분가 근처에 사는 방식은 가장적 가족제의 특질을 유지시켜 주어 이것의 연장으로 문중 및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일치한다.

상속방식도 마찬가지다. 상속할 때 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장치로 이해되며 딸에 대한 상속분의 감소는 부계친족집단 외부로의 재산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이다. 즉 부계친족집단의 결속강화를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장자를 우대하는 불균분 상속을 하게 되면 분가에 대한 본가의 우위가 지켜지고 분가하더라도 같은 마을에 거주하게 되면 상속에 의한 재산분산이 저지되기 때문에, 제사를 계승하는 입사立嗣의 원칙과 함께 수족收族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문중 형성 및 발전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

그러나 차등 지급된 재산은 당대에 소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까지 상속된다는 점에서 상속분의 차이는 곧 불균등한 분기 과정을 야기한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면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점진적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문중 및 동족마을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반상의 신분 구별과 세습적 특권, 즉 양반신분의 유지는 당내

6) 불천지위(不遷之位)와 같은 뜻으로, 큰 업적이 있어 영원히 신위를 모시는 것.

친堂內親을 범주로 하는 특정 성씨가 각자의 처당妻黨 및 외당外黨과의 연결을 통해 결사체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각 성씨가 지역적 연고를 갖는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조직되어 영속적인 집단을 이루게 된 이후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되었다. 15~16세기에 이루어진 입향 시기를 고려하면 특권 양반층은 2세기 후인 17~18세기에 문중을 형성하고, 18~19세기에는 이것이 진전되어 세분화된 생활공간인 동족마을 형태로 발전해 간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겠다.

제2절 관찬사료를 통해 본 자연마을 현황

조선시대 안산지역 자연마을의 현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관찬사료는 거의 없지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호구총수》, 《조선지리지》 등 지지류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촌락 상황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안산지역의 지리적인 영역이 현재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인구 추세를 대략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을 것이다. 지리지 및 통계상에서 보이는 안산지역 전체 인구 변화 추이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안산지역 인구 추이

단위 : 호/세대 · 명

구분	세종실록지리지 (15세기 중반)	해동지도 (18세기 중반)	호구총수 (18세기 후반)	안산통계연보 (1986)	안산통계연보 (2009)
호수	302	2,419	2,758	31,162	273,075
인구	588	10,485	11,926	127,231	739,493

비고 : (안산통계연보)의 연도는 발행연도가 아니라 통계조사 기준연도임.

《세종실록지리지》에 588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18세기에 이르면 1만 명이 넘는다. 인구의 자연 증가와 함께 인구 이동을 점진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인구가 1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구 변화는 한국사회 전

체 변화와 맥락을 함께하여 진행된 과정으로 특히 촌락에서 도시로의 변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촌락에 대한 정보는 희박하지만 안산의 토성으로 김_金·안_安·방_方을 언급하고 있고, 망성_{亡姓}은 임_林씨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생업과 관련해서 어업을 생계로 삼는다고 적고 있어 농업보다는 어업이 강조되고 있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1530년(중종 25)에 증보하여 새로 만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각 지역 정보의 양이 이전보다 확대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경관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는 형승·산천·봉수·학교·역원·불우·사묘·고적 등이 대폭 추가되었다.

그러나 촌락의 정보는 국가단위에서 편찬된 지리지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안산읍지》에서도 촌락의 정보보다는 오히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범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추가되었고, 그 지역의 인물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추가된 측면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관한 지리지의 촌락 정보는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 증가와 면리제의 강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리_里단위 촌락 명칭은 조선 후기에 발간된 《호구총수》와 《조선지리지》 등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살폈다. 《호구총수》를 통해서 안산지역 면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호구총수》에 기재된 면리 현황

단위: 호·명

면명	호수	인구	리명
군내면 (郡內面)	597	2,619	동엄리(東奄里), 서정자리(西亭子里), 장곡리(獐谷里), 부곡리(釜谷里), 신동리(新洞里), 점성리(占星里), 성곶리(聲串里), 성곶포촌리(聲串浦村里), 양등대리(楊等代里)
초산면 (草山面)	484	2,088	두모곡리(豆毛谷里), 목감리(牧甘里), 논지곡리(論知谷里), 물항동리(勿項洞里), 상직곶리(上職串里), 광석리(廣石里), 중직곶리(中職串里), 하직곶리(下職串里), 하직곶중리(下職串中里), 하직곶하리(下職串下里)
잉화면 (仍火面)	355	1,498	북곡리(北谷里), 잉화곶리(仍火谷里), 외곡리(瓦谷里), 고잔리(古殘里), 월입피리(月入皮里)
마유면 (馬遊面)	541	2,307	마현리(馬峴里), 장종리(長宗里), 응곡리(鷹谷里), 월곶리(月串里), 죽울리(竹栗里), 정왕리(正往里), 구지정리(九之井里), 산북리(山北里), 오이도리(烏耳島里)
대월면 (大月面)	266	1,144	거모포리(去毛浦里), 석곡리(石谷里), 선부동리(仙府洞里), 달산리(達山里)
와리면 (瓦里面)	515	2,270	선곡리(船谷里), 신각리(新角里), 적길리(赤吉里), 무등곡리(無等谷里), 성두리(城頭里), 이목리(梨木里), 능내리(陵內里), 원당상리(元堂上里), 원당하리(元堂下里), 포촌리(浦村里), 초지리(草之里)

비고 : 《호구총수》의 편찬시기는 1789년경으로 추정됨.

《조선지지자료》는 편찬연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1911년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료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촌락과 명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리의 명칭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불렀던 명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호구총수》가 제작되었을 18세기 후반 현황과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조선지지자료》에 기재된 면리 현황

면명	동리명		면명	동리명		면명	동리명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군내면 (郡內面)	수암리(秀岩里)		성곶면 (聲串面)	이리(二里)	솔이웃	대월면 (大月面)	선부동(仙府洞)	선녀골
	서정리(西亭里)	독슈리		삼리(三里)	시암골		달산리(達山里)	달막
	장상리(章上里)	노리울		사리(四里)	주더리		조현리(鳥峴里)	식지
	장하리(章下里)	벗말		본오리(本五里)	빗웃		장상리(長上里)	진말우
	동곡(東谷)	동막골		분오리(分五里)	오목골		장하리(長下里)	진말우
	신리(新里)	시랑골		북곡(北谷)	뒤일		도촌(島村)	섬말
	점성리(占星里)	점성		능곡(陵谷)	능골		응곡리(鷹谷里)	민솔
	성포리(聲浦里)	성머리		화정리(花井里)	굿주물		산북리(山北里)	산뒤
	양상리(楊上里)	윗버덕		광곡(廣谷)	너빌		월동리(月東里)	달월이
	양하리(楊下里)	아리버덕		와상리(瓦上里)	압술		월서리(月西里)	달월이
북방면 (北方面)	속달(速達)一里	갈틱	인화면 (仁化面)	와하리(瓦下里)	동장니	마유면 (馬遊面)	죽울리(竹栗里)	딴암이
	속달(速達)二里	속달		고잔리(古棧里)			구정리(九井里)	구지물
	속달(速達)三里	납작골		월피리(月陂里)	달이피		정왕리(正往里)	봉화저
	둔대동(屯垔洞)	둔터		모곡리(茅谷里)	빅양골		오이도(烏耳島)	옥귀섬 ^①
	팔곡(八谷)一里	남손들		반곡리(般谷里)	빅양골		(일명 玉龜島)	
	팔곡(八谷)二里	담너머		신각리(新角里)	식솔이		조남리(鳥南里)	식임이
	대야미(大夜味)			적길리(赤吉里)			제청리(祭廳里)	장군곶
	도마교(渡馬橋)	도마달이		무곡리(茂谷里)	무들		목감리(牧甘里)	모감이
	건건리(乾乾里)	건짐이		성두리(城頭里)	저멸이		울포리(栗浦里)	밤기물
	상초평(上草坪)	윗시우덕		이목리(梨木里)	빅늑물		논곡리(論谷里)	논줄
하초평(下草坪)	아리시우덕	능내리(陵內里)	능안이	물왕리(物旺里)	물양골			
월곡면 (月谷面)	사사리(沙土里)	스질이	와리면 (瓦里面)	성내리(城內里)	성안이	초산면 (草山面)	산현리(山峴里)	외지
	오룡동(五龍洞)			원상리(元上里)	양지말		괘곡(橫谷)	살디골
	당수리(棠樹里)	당진기		원포리(元浦里)	둠빔이		상직리(上職里)	얼
	입북리(笠北里)	갓뒤		초지리(草芝里)			광석리(廣石里)	나분들
	대대리(大垔里)	큰터		시우리(時雨里)	시우골		중직리(中職里)	오솔
	일리(一里)			원하리(元下里)	범직이		하상리(下上里)	하직곶
	월암리(月岩里)	월곡		거모포(去毛浦)	거무기		하중리(下中里)	베실고지
	성곶면	일리(一里)		구룡골	대월면 (大月面)		석곡리(石谷里)	도일

비고 : 《조선지지자료》의 편찬연대는 1911년으로 추정됨.

① 마유면 오이도의 한글명은 원문에 '옥귀섬'으로 적혀 있으나 '옥귀섬'의 오키로 보임.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호구총수》와 비교해 보면 20세기 초반에 편찬된 《조선지리지》에는 안산지역 면리의 수와 동리의 수, 그리고 명칭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면의 수가 6개에서 9개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된 면은 북방면·성곶면·월곡면이고, 잉화면은 인화면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면 내부에서도 동리의 수가 조정이 되었는데, 군내면은 양하리가 추가되었다. 초산면은 두모곡리의 명칭이 없어졌으며, 대신 조남리·제청리·울포리·산현리·괘곡과 같은 지명이 새로 보인다. 그 밖에도 기존에 있던 마을이 분화되어 명칭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볼 수 있다. 군내면 양등대리는 양상리와 양하리 2개의 마을로 분화된 것으로 보이며, 잉화면 와곡리는 와상리와 와하리로, 마유면 장종리는 장상리와 장하리로, 월곡리는 월동리와 월서리로 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화가 아니라 병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지적한 사례의 경우 인구 증가와 함께 점차 촌락이 분동分洞되는 상황을 반영한 경우라고 여겨진다.

15세기 중반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588명에 불과했던 안산지역은 조선시대 인구 증가로 촌락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18세기 후반 《호구총수》에는 그 촌락수가 리를 기준으로 48개이며, 19세기 초반에 작성된 《조선지리지》에서는 동리가 86개로 늘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나타난 동리의 분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안산지역 외연의 확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해방 이후인 1957년에 편찬된 《경기도지京畿道誌》에는 세거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각 성씨의 입향 시기와 집성촌 형성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 안산의 각 지역은 시흥군·화성군·부천군으로 나뉘어 속해 있었다.

【표 4】 《경기도지》에 수록된 안산지역의 집성촌

단위 : 세대

군명	면명	동리명	성씨	세대수	세거 기간
시흥군	수암면	부곡리	진주유씨	36	200년
		화정리	김녕김씨	35	250년
			밀양박씨	28	200년
		양상리	진주강씨	20	400년
		와리	김해김씨	22	280년
			인동장씨	22	200년

군명	면명	동리명	성씨	세대수	세거 기간
시흥군	수암면	성포리	김해김씨	21	300년
		고잔리	전주이씨	24	350년
		능곡리	안동권씨	32	250년
		하중리	인동장씨	21	170년
			경주김씨	20	200년
	군자면	신길리	해주정씨	23	400년
			파평윤씨	23	480년
		성곡리	김해김씨	24	300년
			원사리	김해김씨	68
		거모리	순흥안씨	43	320년
			청주한씨	23	300년
		군자리	전주이씨	34	309년
		장현리	안동권씨	27	600년
		장곡리	전주이씨	81	305년
			덕수장씨	23	300년
		월곶리	경주최씨	55	218년
			순흥안씨	43	270년
		정왕리	밀양박씨	77	268년
			김해김씨	43	140년
			원주원씨	23	250년
청주한씨	33		200년		
죽율리	영양천씨	29	190년		
	순흥안씨	42	149년		
	김해김씨	24	250년		
화성군	반월면	일리	김해김씨	30	미상
			단성이씨	24	미상
		아리	전주이씨	28	미상
			청주한씨	21	미상
		사리	김해김씨	21	미상
			양주최씨	73	미상
		본오리	김해김씨	22	미상
			전주이씨	24	미상
			신안주씨	22	미상
		팔곡일리	파평윤씨	26	미상
			여흥민씨	27	미상
		건건리	안동장씨	25	미상
			청주한씨	59	미상
		사사리	경주최씨	28	미상
		둔대리	신안주씨	25	미상
청송심씨	39		미상		

군명	면명	동리명	성씨	세대수	세거 기간
시흥군	군자면	속달리	동래정씨	23	미상
		당수리	임천조씨	20	미상
			청주한씨	30	미상
		초평리	하동정씨	31	미상
		입북리	경주김씨	26	미상
			밀양박씨	23	미상
		월암리	성주이씨	24	미상
			성주도씨	40	미상
부천군	대부면	동리	평택임씨	45	200년
			평산신씨	30	300년
			남양홍씨	23	200년
			교하노씨	33	150년
			김해김씨	25	180년
		남리	경주이씨	50	160년
			평산신씨	21	300년
			남양홍씨	33	250년
		북리	경주김씨	138	250년
			남양홍씨	24	200년
		풍도리	김해김씨	32	120년

비고 : 진한 글씨는 현 안산지역임.
출전 :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1957.

제3절 도시 개발 이전의 집성촌 현황

안산지역 집성촌 현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거의 없지만 일제 강점기 일본인 첩조 에이스케가 쓴 《조선의 취락》(1933)과 《조선의 성》(1934)을 통해 집성촌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그는 《조선의 취락》에서 촌락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표 5]는 《조선의 성》에 수록된 집성촌 중 현 안산지역이 포함됐던 시흥군·수원군·부천군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조선의 성》에 수록된 안산지역의 집성촌

단위 : 세대

군명	면명	동리명	성씨	세대수	비고
시흥군	수암면	성포리	여주이씨	17	
			김해김씨	19	
		월피리	전주이씨	16	
			김녕김씨	17	
		화정리	김해김씨	27	
			밀양박씨	34	
			광산김씨	18	
	군자면	조남리	김해김씨	20	
			밀양박씨	15	
		논곡리	김해김씨	19	
수원군	반월면	원사리	김해김씨	49	
		장곡리	전주이씨	35	
		이리	전주이씨	20	
		사리	양주최씨	48	
		입북리·도마교리	밀양박씨	26	
부천군	대부면	월암리	성주이씨	25	
		후개동	경주김씨	22	두우현
		상동	경주김씨	32	

비고 : 진한 글씨는 현 안산지역임.

출전 : 전소 에이스케(善生永助), 《조선의 성(朝鮮의姓)》, 1934.

실제 안산지역 촌락을 조사해 보면 촌락에 입향한 특정 성씨의 연대가 조선시대 소급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무척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를 기점으로 반월공단 및 신공업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연마을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도시화로 사라진 집성촌도 다수 있다. 게다가 한말의 안산지역 집성촌 상황은 관찬사료를 통해서 살펴보기는 힘들다. 그나마 1857년(철종 8) 안산지역 문인인 진주강씨 강재홍(姜在鴻)이 남긴 자료를 기초로 1878년(고종 15) 재발행을 거쳐 1984년에 다시 출판된 《연성성보(蓮城姓譜)》와 과거 군자면과 수암면 일대 각 성씨들의 대강의 세장지를 통해 세거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연성성보》에 기술된 안산의 성씨는 전주이씨 13개 파, 김씨 6개 본관, 이씨 10개 본관, 진주강씨 안동권씨 2개 파, 의령남씨 2개 파, 진천송씨, 평산신씨, 광주안씨, 순흥안씨 2개 파, 유씨 2개 본관, 파평윤씨 3개 파, 풍천임씨 2개 파, 나주임씨, 원주원씨, 덕수장씨, 나주정씨, 정씨 4개 본관, 조씨 3개 본관, 최씨 2개 본관, 청주한씨 3개 파, 양천허씨, 남양홍씨 등 총 50개 성씨 73개 문중이다.

현 안산은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상황이라 과거 집성촌 상황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성성보》에 기재된 세거지 정보와 1999년에 편찬된 《안산시사》 지명유래 자료의 촌락과 성씨 정보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1. 《연성성보》에 기재된 단원구의 집성촌 현황

1) 와동

조선시대 안산군 잉화면 외상리瓦上里와 와하리瓦下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와리瓦里로 통합되었고, 1986년에 안산시 와동이 되었다. 신도시 개발로 자연마을은 없어진 상태다. 예전에는 가자골[佳才谷]·뒷골[後谷]·동작리[銅雀里·洞長里]·새말[新村], 압실[前村]·왜두들기·큰고개[大峴]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압실은 와동에서 최초로 형성된 자연마을이다. 원래 순흥안씨 선대의 땅이었다고 하는데, 인조반정으로 순천김씨 김류金鑾(1571~1648)가 일등공신이 되어 이 일대를 사패지로 받았다고 한다. 여산송씨와 김해김씨도 이곳에 세거하였다. 호수는 31호 정도였다고 한다. 동작리는 남양홍씨와 인동장씨·전주이씨 등 50여 호가 세거했다. 뒷골은 압실과 동작리에 살던 김해김씨·인동장씨 등이 분가하면서 형성되었다. 새말 또한 동작리에 살던 사람들이 분가하면서 촌락으로 변모하였다. 왜두들기는 고성이씨·안산김씨 등이 세거한 28호 규모의 마을이었다. 큰고개는 파평윤씨와 고성김씨 등이 세거한 7호 규모의 작은 마을이었다.

2) 고잔동

조선시대 안산군 잉화면 고잔리古棧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고잔리로 개칭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고잔동이 되었다. 도시화되기 전 자연마을은 곁뜰·고로리·고잔역·너머고잔·당골[堂谷]·도리섬·마산모퉁이·마실[梅實谷]·안터·원고잔·적금·전나무고개·절골말·칠반·태봉 등이 있었다. 이 중 촌락이 가장 먼저 형성된 곳은 고로리로 추정되

는데 전주이씨와 광주안씨가 세거했다고 한다. 너머고잔은 남양홍씨가 세거하면서 '홍촌洪村'이라 불렸다. 당골은 파평윤씨·풍양조씨·밀양박씨 등이 세거했다고 하며, 마실은 전주이씨의 오랜 세거지였다고 한다. 안터에는 전주이씨·김해김씨·청주한씨 등이 살았으며, 원고잔은 남양홍씨 당홍파의 집성촌이 있었다. 절골말은 밀양박씨 밀성군파의 집성촌이라 하여 일명 '박씨촌朴氏村'이라 불렸다. 현재 고잔동은 도시화로 아파트촌이 들어서 있다.

3) 목내동

조선시대 안산군 와리면 이목리梨木里와 능내리陵內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군자면 목내리로 통합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목내동이 되었다. 현재는 도시개발로 자연마을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능안陵內과 배나물[藥木] 2개가 있었다. 능안은 전주이씨를 비롯해서 경주최씨·김해김씨·김녕김씨 등 80여 호가 살던 대촌이었고, 배나물은 전주이씨·안동김씨 등의 세거지였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의 묘가 능안에 있었다고 한다.

4) 선부동

조선시대 안산군 대월면 선부리仙府里와 달산리達山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군자면 선부리로 통합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선부동이 되었다. 현재 도시개발로 자연마을 대부분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거미울[居美谷]·관모산·달미[達山]·대쟁이[大壯]·모골[池谷]·비누지[斌裕地]·새것골·석수골[石手洞]·소바위너머·쑥개·우산이[隅山]·장터·정지막골[正芝村]·태을 등이 있었다.

선부동은 관내 최초로 산대장 장시가 섰을 만큼 활발한 곳이었다. 관모산에는 원주이씨·진주강씨 등 24가구 정도 거주하였으며, 달미에는 나주나씨·진주강씨·순흥안씨·교하노씨 등 32호 정도가 거주하였다. 비누지에는 안산김씨·진주강씨·파평윤씨 등이 거주하였고, 석수골의 경우 조선 태종 때 연성군蓮城君에 봉해진 김정경金定卿(1345~1419)의 손자 김맹전金孟鎭의 묘를 조성한 이후 안산김씨 후손이 세거하였다. 우산이마을에는 파평윤씨 묘역이 있었고, 남평문씨·경주김씨·전주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정지막골은 함양박씨가 세거하였다.

5) 성곡동

조선시대 안산군 와리면 성두리城頭里와 무곡리茂谷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군자면 성곡리城谷里에 포함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성곡동이 되었다. 예전에는 골우물[古井]·느티나무재[槐峴]·도란말[廻村]·무들[茂谷·無坪]·별말[坪村]·안말[安村·內村]·장가물·장자골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지만 현재는 반월공단 조성으로 사라진 상태이다. 골우물에는 밀양박씨·전주이씨 등 18호가 거주하였으며, 도란말은 김녕김씨·남양홍씨 등의 세거지로 20여 호가 거주했다. 무들마을은 파평윤씨가 대성인 마을로 제주고씨·김녕김씨·양천허씨 등 35호가 거주하였으며, 별말은 김녕김씨 충의공파 후손들이 세거한 이래 전주이씨 등 11호 정도 거주하였고, 안말은 순흥안씨·밀양박씨·파평윤씨·제주고씨·대구배씨 등이 세거하였다.

6) 신길동

조선시대 안산군 와리면 신각리新角里와 적길리赤吉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新吉里에 편입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신길동이 되었다. 신도시 개발로 자연마을 일부는 편입되어 사라졌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능길·당쟁이[堂井]·만해·문화촌·배나루[船津]·별당·살막재·셋빨[漸角·新覺]·성안[城內]·신촌·원곡역·장자골[長子谷]·작은뱅골[船谷]·젓마당·큰뱅골[船谷]·터진목·풍전·한티·Hits발머리 등 자연마을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별당에는 해방 직후 해주정씨가 거주하였고, 셋빨에는 회덕송씨 입학 이후 나주정씨·김해김씨 등이 대성을 이루었다. 성안은 안동권씨가 처음 자리를 잡았다. 큰뱅골은 조선시대 양주목사를 역임한 전의이씨 이경희가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에 터를 잡아서 전의이씨가 대성이며, 해주최씨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 큰뱅골에서 분가한 전의이씨 후손들은 작은뱅골에 새로운 촌락을 형성하였다. 작은뱅골에는 전의이씨 선대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풍전의 경우 종시량을 역임한 해주정씨 정구가 정착하면서 해주정씨가 대성인 마을로 발전하였다.

7) 원곡동

조선시대 안산군 와리면 원상리元上里와 모곡리茅谷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

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元谷里로 편입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원곡동이 되었다. 현재 원곡동 일대는 반월공단 개발과 함께 주거지로 개발되어 자연마을은 찾아볼 수 없다. 이곳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안산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예전에는 뗏골[茅谷]·동산골[東山谷]·백성말[百姓洞]·신흥동新興洞·양지마을[陽谷]·오지미[奧地山]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뗏골은 고려 말기 왜구를 격파한 무신 오언吳彦의 묘가 들어선 후 그 후손인 동복오씨가 세거하였고 가구수는 약 40호였다. 동산골은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동산윤지원尹趾完(1635~1718)의 사당이 있어서 유래한 이름으로 파평윤씨와 남양홍씨가 세거했다. 양지마을은 한양조씨·밀양박씨·파평윤씨·밀양손씨·김녕김씨·순흥안씨 등 48호 정도가 살았는데, 그중 밀양박씨가 대성이었다.

8) 원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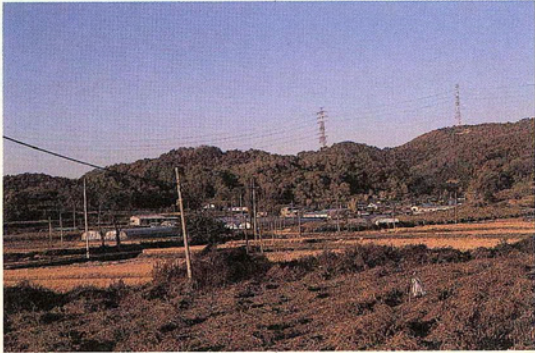
조선시대 안산군 와리면 원하리元下里와 시우동時雨洞이었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군자면 원시리元時里로 편입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원시동이 되었다. 이 일대의 자연마을은 반월공단이 개발되면서 없어진 상태지만 예전에는 범직이[凡直]·시골[時雨]·웃나무골[漆谷·櫛谷]·은행나무뿌리·진말 등이 있었다. 범직이는 김해김씨 김녕군의 12세손인 김무승金武承(1608~1673)이 훈련원도정을 역임한 후 낙향해서 살았던 곳으로 김해김씨가 대성을 이루었고, 하동정씨·언양김씨·진주강씨 등 78호가 세거한 큰 촌락이었다. 시골은 남양홍씨·밀양박씨·청주한씨·진주하씨 등이 65호 정도 세거하였으며, 웃나무골은 용인이씨 참의공파 30세인 이승호와 아들 이재학의 묘가 조성되어 있고 그 후손들이 대성을 이루어 살던 곳으로 20여 호 규모의 촌락이었다. 진말은 범직이의 김해김씨 후손이 분가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었다.

9) 초지동

조선시대 와리면 초지리草芝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로 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초지동으로 편입되었다. 도시개발로 자연마을은 사라진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가나골·갯머리·더덕구지·둔배미·신촌·옛집터·원초지·작은백중·작은별망·작은주정·큰별망·큰백중·큰주정·한학골[閑鶴谷]·화랑농장 등이 있었다. 가나골은 우계이씨·여흥민씨 등 20여 호가 세거하였으며, 갯머리는 우계이씨·여흥민씨·청송심씨·강

릉김씨 등 12호가 세거하였다. 둔배미는 초지동에서도 자연마을이 가장 먼저 형성된 곳으로 밀양박씨·연일정씨·천안전씨 등 80여 호의 대촌이었다. 원초지에는 여흥민씨·우계이씨 등 23호가 세거하였다.

10) 화정동



김녕김씨 집성촌인 너빌마을 (1996)

조선시대 안산군 잉화면 화정리花井里와 광곡리廣谷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화정리가 되었다가 1995년에 안산시 화정동이 되었다. 도시 근교 농촌으로 현재까지 자연마을이 남아 있는 곳이다. 자연마을로 가래울[楸谷]·고주물[元花井]·너빌[廣谷]·나비골·대장골·성지골 등이 있다. 고주물은 밀양박씨가 터를 잡은 마을이고, 너빌은 김녕김씨 집성촌으로 '김성동金姓洞'이라 불렀다.

11) 대부동

조선시대 남양군 대부면大阜面이었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천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73년에 용진군에 편입되었고 1994년에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대부동의 세거 성씨에 대한 기록은 적은 편이다. 대부북동 상동 소자마을의 경우 400년 전에 영월신씨 가문에 효자가 있어 임금이 효자정문을 내려 효자마을[孝子村]이라고 했는데 그 후 '효자'가 '소자'로 변음되어 오늘날 소자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고유지古油地는 대부도 중심에 위치한 마을로 평택임씨 집성촌이다.

[표 6] 단원구 성씨 및 세거지

동명	자연마을	세거 성씨	현존 여부	비고
고잔동	고로리	전주이씨, 광주안씨	×	
	너머고잔	남양홍씨	×	홍촌(洪村)
	원고잔	남양홍씨	×	
	당골	파평윤씨, 풍양조씨, 밀양박씨	×	
	마실	전주이씨	×	
	안터	전주이씨, 김해김씨, 청주한씨	×	
	질골말	밀양박씨	×	

동명	자연마을	세거 성씨	현존 여부	비고
와동	압실	순천김씨, 여산송씨, 김해김씨	×	
	동작리	남양홍씨, 인동장씨, 전주이씨	×	
	뒷골	김해김씨, 인동장씨	×	분가 후 형성
	왜두돌기	고성이씨, 안산김씨	×	
목내동	능안	전주이씨, 경주최씨, 김해김씨, 김녕김씨	×	80여 호 대촌
	배나물	전주이씨, 안동김씨	×	
	관모산	원주이씨, 진주강씨	×	
선부동	석수골	안산김씨	×	
	달미	나주나씨, 진주강씨, 순흥안씨, 교하노씨	×	
	비누지	안산김씨, 진주강씨, 파평윤씨	×	
	우산이	파평윤씨, 남평문씨, 경주김씨, 전주이씨	×	
성곡동	골우물	밀양박씨, 전주이씨	×	
	도란말	김녕김씨, 남양홍씨	×	
	무들마을	파평윤씨, 제주고씨, 김녕김씨, 양천허씨	×	
	별말	김녕김씨, 전주이씨	×	
신길동	별당	해주정씨	×	
	셋밭	회덕송씨, 나주정씨, 김해김씨	△	촌락 일부 현존
	도일마을	순흥안씨	○	
	성안	안동김씨	×	
	큰뱅골	전의이씨, 해주최씨	×	
	작은뱅골	전의이씨	×	분가 후 형성
	풍전	해주정씨	×	
원곡동	맷골	동북오씨	×	
	동산골	파평윤씨, 남양홍씨	×	
	양지마을	밀양박씨 대성	×	
원시동	범직이	김해김씨 대성	×	
	시골	남양홍씨, 밀양박씨, 청주한씨, 진주하씨	×	
	웃나무골	옹인이씨	×	
	진말	김해김씨	×	분가 후 형성
초지동	가나골	우계이씨, 여흥민씨	×	
	갯머리	우계이씨, 여흥민씨, 청송심씨, 강릉김씨	×	
	둔배미	밀양박씨, 연일정씨, 천안전씨	×	80여 호 대촌
	원초지	여흥민씨, 우계이씨	×	
화정동	고주물	밀양박씨	○	
	너빌	김녕김씨	○	
대부동	소자마을	영월신씨	○	
	고유지	평택임씨	○	

비고 : 현존 여부는 남아 있음(○), 일부 남음(△), 없음(×) 등으로 구분함.

2. 《연성성보》에 기재된 상록구의 집성촌 현황

1) 부곡동

조선시대 안산군 군내면 부곡리釜谷里와 신리新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부곡리로 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부곡동이 되었다. 현재 부곡동에는 소규모 공장 등이 있어 과거의 자연마을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개멸[釜谷]·벌터·새마을·시랑골[侍郎谷]·신촌·용기마을[店村]·정재골[靜齋谷] 등이 있었다. 부곡동은 특히 진주유씨 세거지로, 묘역을 비롯하여 청문당과 경성당 종가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개멸(원부곡)은 진주유씨 누대의 세거지로 후손들이 점차 주변 지역으로 분가하면서 시랑골·신촌 등과 같은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2) 성포동

조선시대 안산군 군내면 성포리聲浦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성포리로 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성포동이 되었다. 동의 이름이 '성포聲浦'인 것은 만선으로 귀향하는 어부들의 소리가 컸다 하여 유래된 것이다. 자연마을은 도시개발로 사라지고 아파트지역으로 변화하였지만 예전에는 성머리[聲頭]·독주골[獨水谷]이 있었으며, 여주이씨·영월신씨·파주염씨 등 76호 정도가 세거하였다고 한다.

3) 양상동

조선시대 안산군 군내면 양상리楊上里와 양하리楊下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양상리로 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양상동이 되었다. 비교적 자연마을의 형태가 많이 보존된 곳으로 도심과 달리 주민들이 여전히 근교 농촌의 생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웃버대[上楊臺]·아랫버대[下楊臺]가 있다. 웃버대마을에는 예조참판을 지낸 강징姜徵(1466~1536)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진주강씨·사천목씨·나주정씨 등 40여 호가 세거하였다. 아랫버대마을은 웃버대마을의 진주강씨 후손들이 분

가하면서 형성되었다.

4) 월피동

조선시대 안산군 잉화면 월피리(月陂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월피리가 되었다가 1986년에 안산시 월피동이 되었다. 자연마을은 신도시 개발로 없어진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다리피(月入陂)·마산모퉁이·부루지 등이 있었다. 다리피는 남평문씨·파주염씨·초계정씨·풍양조씨·경주김씨 등 70여 호가 세거하였으며, 부루지에는 전주이씨·파평윤씨 등 60여 호가 세거하였다. ‘일-논줄(현 시흥시 논곡동)·이-다리피’라고 하여 농업생산성이 높았던 곳으로 유명하였다.

5) 일동

조선시대 광주군 성곶면 일리(一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산군 성곶면 일리(一里)였다가 1949년에는 화성군 반월면 일리가 되었고 1986년에 안산시 일동이 되었다. 현재는 도시개발로 자연마을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점성리(점성리)·기와집말(瓦村)·석삼말(石三村)·아랫말(船村)·안골(內谷)·응달말·주막거리 등이 있었다. 점성리에는 점섬(占星)·계향동·절골(寺谷) 등이 있었다. 점성리(점성리)는 실학자 성호 이익이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며, 계향동은 경주김씨 등이 세거하였다. 점섬은 병조판서를 지낸 여주이씨 이계손(李繼孫)과 그의 셋째 아들 이지시(李之時)의 묘가 조성된 후 묘하에 여주이씨 후손들이 살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점섬에는 여주이씨 외에도 김해김씨·밀양박씨 등 67호가 있었다. 옷말·응달말·기와집말을 합쳐서 구렁골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단성이씨의 세거지였으나 안동김씨의 세도에 밀려 안동김씨 묘역이 많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응달말은 함안이씨의 세거지였다.

6) 이동

조선시대 광주군 성곶면 이리(二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산군 성곶면 이리였다가 1949년에는 화성군 반월면 이리가 되었고 1986년에 안산시 이동이 되었다. 현재는 도시개발로 자연마을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고잔·독안·바라지·붉은섬·양지편·역전·음택이[陰澤]·조구나리·조미[造梅] 등이 있었다. 고잔·음택이·조구나리 등 3개 마을의 대성은 청주한씨·전주이씨였다.

7) 사동

조선시대 광주군 성곶면 사리四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산군 성곶면 사리였다가 1949년에는 화성군 반월면 사리가 되었고 1986년에 안산시 사동이 되었다. 현재는 도시개발로 자연마을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가래재·감자골[柿竹谷]·구라·긴곶[長華]·느진구지[晚花串]·뒷골[後谷]·막고지[莫串]·분대[粉垆]·산우물[山井]·삼리·삼밭[麻田]·샘골[泉谷]·석호·승지골[承旨谷]·초당·항기울[杭湖] 등이 있었다. 사동은 양주최씨가 대성을 이뤘는데, 조선시대 연산군 때 최훈[崔渾]이 무오사화를 피해 낙향해 감자골에 초가를 짓고 마을을 형성한 이후로 그의 후손이 점차 분가해서 긴곶·삼밭·초당·감자골 등지에 모여 살았다. 뒷골에는 양주최씨 외에도 수성최씨·김해김씨·안동김씨·밀양박씨·수원백씨·평산신씨·신안주씨 등 12개 성씨가 살았으며, 막고지에는 전주이씨와 풍양조씨가 세거하였다. 샘골은 남양홍씨 문희공[文僖公派] 23세손인 홍의경[洪義卿]이 처음 세거한 이래 그의 후손이 대대로 살아온 세거지로 과거에는 40여 호 중에 절반이 남양홍씨였다.

8) 본오동

조선시대 광주군 성곶면 본오리本五里와 분오리分五里였던 곳이다. 1906년에 안산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 반월면 본오리가 되었다. 1949년에 화성군 반월면 본오리로 바뀌었으며 1986년에 안산시 본오동이 되었다. 현재는 도시개발로 자연마을이 사라진 상태지만 과거에는 각골[角谷]·배웃[梨湖]·오목골[梧木洞]·염전·작은반월[小半月] 등이 있었다. 각골에는 전주이씨·순흥안씨 등 55호가 살았으며, 배웃은 포구가 있던 마을로 도시개발 전에 103호가 세거할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오목골에는 영천이씨·김해김씨·파평윤씨·인동장씨 등 60여 호가 거주했으며, 작은반월에는 광주이씨와 제씨 등 67호가 거주하였다.

9) 팔곡동

조선시대 광주군 북방면 팔곡일리八谷一里와 팔곡이리八谷二里였던 곳이다. 1906년 안산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원군 반월면에 포함되었다가 1949년에 화성군으로 다시 편입되었다. 그 후 1986년 팔곡이리가 안산시 팔곡이동이 되었고, 1994년에 팔곡일리가 안산시 팔곡일동이 되었다. 안산시에서 도시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자연마을이 남아 있다. 팔곡일동에는 남산뜰[南山坪]·능앞[陵前]·선학골[仙鶴洞]·구장터[舊場址]·우묵골[井洞] 등이 있고, 팔곡이동에는 담너머[澗園]·셋골[間谷] 등이 있다. 팔곡일동에는 조선 초 한명회의 장인 민대생閔大生(1372~1467)의 묘가 조성된 이후로 여흥민씨가 분가하여 이 일대에 세거하였는데 선학골에는 여흥민씨 종가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팔곡이동 담너머는 광주이씨가 대성으로 신안주씨·전주이씨 등이 세거하였으며, 셋골은 평택임씨·해주오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고 그 밖에 원주변씨·김해김씨·경주김씨 등이 세거하였다.

10) 건건동

조선시대 광주군 북방면 건건리乾乾里였던 곳이다. 1906년에는 안산군, 1914년에는 수원군에 속했고 1949년에 화성군으로 포함되었다가 1994년에 안산시 건건동이 되었다. 현재 도시개발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일부 자연마을이 남아 있다. 예전에는 건지미·구장터[舊場址]·용담뿌리·창말[倉村]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11) 사사동

조선시대 광주군 북방면 사사리沙士里였던 곳이다. 1906년에는 안산군, 1914년에는 수원군에 속했고 1949년에 화성군으로 포함되었다가 1994년에 안산시 사사동이 되었다. 이 지역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안골[內谷]·대촌·상촌 등의 자연마을이 유지되고 있다.

12) 수암동

조선시대 안산군 군내면 수암리秀岩里와 서정리西亭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수암리로 편입되었다가 1995년에 안산시 수암동이 되었다. 현재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서 자연마을은 사라진 상태지만 예전에는 남사박·안산·지장골·원당골 등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아가 있어 행정 중심지였던 곳이다.

13) 장상동

조선시대 안산군 군내면 장상리簾上里였던 곳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장상리로 편입되었고 1995년에 안산시 장상동이 되었다. 도시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자연마을이 남아 있다. 자연마을로는 갯다리[介橋]·노리울[籬谷]·동막골[東谷] 등이 있다. 노리울은 안산김씨가 터를 잡고 세거한 곳으로 일명 연성골[蓮城谷]이라고도 하였다. 동막골 역시 안산김씨가 대성을 이루어 세거하였다.

14) 장하동

조선시대 안산군 군내면 장하리簾下里였던 곳이다. 장상동과 마찬가지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흥군 수암면 장하리로 편입되었고 1995년에 안산시 장하동이 되었다. 현재까지 근교 농촌 자연마을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마을로는 별말·원뒤[院後]·탑골[塔谷] 등이 있다. 별말은 곤양배씨·풍양조씨·순흥안씨 등이 차례로 정착하면서 조선 말기에 형성된 촌락이라고 하며, 원뒤는 남양 및 서신에서 개성·인천·서울을 갈 때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원院이 있던 마을이다.

[표 7] 상록구 성씨 및 세거지

동명	자연촌락	세거 성씨	현존 여부	비고
부곡동	개말	진주유씨	△	청문당
	시랑골	진주유씨	△	분가 후 형성
	신촌	진주유씨	△	분가 후 형성
성포동	성머리	여주이씨, 영월신씨, 파주염씨	×	
	계항동	경주김씨	×	
	점섬	여주이씨 대성	×	
양상동	웃버대	진주강씨 대성, 사천목씨, 나주정씨	○	
	아랫버대	진주강씨 각성	○	분가 후 형성
월피동	다리피	남평문씨, 파주염씨, 초계정씨, 풍양조씨	×	
	부루지	전주이씨, 파평윤씨	×	
일동	구룡골	단성이씨, 안동김씨	×	
	응달말	함안이씨	×	
이동	고잔	청주한씨, 전주이씨	×	
	음택이	청주한씨, 전주이씨	×	
	조구나리	청주한씨, 전주이씨	×	
사동	분대	양주최씨	×	
	긴곳	양주최씨	×	분가 후 형성
	삼밭	양주최씨	×	분가 후 형성
	뒷골	양주최씨, 수성최씨, 김해김씨, 안동김씨, 밀양박씨, 수원백씨, 평산신씨, 신안주씨		
	사막고지	전주이씨, 풍양조씨	×	
	샘골	남양홍씨 대성	×	
본오동	각골	전주이씨, 순흥안씨	×	
	오목골	영천이씨, 김해김씨, 파평윤씨, 안동장씨	×	
	작은반월	광주이씨, 제씨	×	
팔곡동	선학골	여흥민씨	○	
	능앞	여흥민씨, 전주이씨	○	분가 후 형성
	남산들	여흥민씨	○	분가 후 형성
	담너머	광주이씨, 신안주씨, 전주이씨	△	
	셋골	평택임씨, 해주오씨, 원주변씨, 김해김씨	△	
장상동	노리울	안산김씨 대성	○	
	동막골	안산김씨 대성	○	
장하동	벌말	곤양배씨, 풍양조씨, 순흥안씨	○	
건건동	윗삼천리	창녕조씨	○	
	아랫삼천리	안동장씨	○	

비고 : 현존 여부는 남아 있음(○), 일부 남아(△), 없음(×) 등으로 구분함.

3. 안산지역 집성촌의 특징

안산지역 마을과 각 성씨의 세거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과거의 대표적인 집성촌은 다음과 같다. 부곡동 개멸·신촌·시랑골에 세거하였던 진주유씨 촌락, 양상동 옷버대·아랫버대에 세거하고 있는 진주강씨 촌락, 팔곡일동 선학골·남산뜰·능앞에 세거하고 있는 여흥민씨 촌락, 장상동 노리울·동막골에 세거하고 있는 안산김씨 촌락, 원시동 범직이 김해김씨 촌락, 화정동 고주물 밀양박씨 촌락, 화정동 너빌 김녕김씨 촌락, 고잔동 너머고잔의 남양홍씨 촌락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자연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양상동 진주강씨 촌락, 팔곡일동 여흥민씨 촌락, 장상동 안산김씨 촌락, 화정동 밀양박씨 촌락과 김녕김씨 촌락 정도이고, 부곡동 진주유씨 촌락은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서 촌락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지만 진주유씨 대종가 청문당과 소종가 경성당에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안산지역 집성촌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집성촌이 형성되기 전에 조상의 묘역이 먼저 조성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팔곡일동은 여흥민씨 12세 민대생(閔大生)의 묘가 15세기 중반에 조성된 이래로 여흥민씨의 집성촌으로 변화하였다. 양상동의 경우 16세기 중반 진주강씨 강징(姜徵)의 묘가 자리 잡은 이래로 진주강씨가 누대로 거주하는 집성촌으로 변화하였다. 부곡동은 16세기 후반 사패지로 받은 이 지역에 선조의 딸 정정옹주의 시아버지인 진주유씨 유시행(柳時行)의 묘를 조성하면서부터 점차 진주유씨 세계를 보여주는 선영으로 변화하였다. 그 외에도 화정동 김녕김씨, 장상동 안산김씨 등이 묘역 조성 이후 점차 같은 성씨의 친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두 번째는 선영이 조성된 후 곧바로 후손이 세거하기 시작했다고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선영 조성 후 어느 시점부터 그 후손이 촌락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하면서 분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원래 정착했던 세거지 주변으로 촌락이 확장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길동은 큰뱅골에 전의이씨가 정착한 이후 점차 후손이 분가해 나가면서 작은뱅골에 전의이씨 촌락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원시동 김해김씨 집성촌의 경우에도 범직이마을에 먼저 정착한 이후 점차 후대로 가면서 분가해 나가는 후손이 늘면서 진말이 형성되었다. 부곡동의 경우에도 진주유씨가 개멸에 정착한 이후 점차 시랑골·신촌으로 후손이 퍼지면서 주변에 새로운 집성 촌락이 발전하게 되었다. 양상동의 경우에도 옷버대에 진주

강씨가 점차 세대를 거듭하면서 아랫버대까지 확장되고 있고, 사동 양주최씨의 경우에도 최초 정착지인 둔대를 중심으로 긴곳·삼밭 등 주변 지역으로 최씨마을이 확장되고 있다. 또 팔곡일동 여흥민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가가 있는 선학골을 중심으로 후손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인근 남산뜰·능앞으로 집성촌의 확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해방 이후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생업을 하는 주민이 증대하면서 집성촌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집성촌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근교 농촌지역의 집성촌에는 부모 세대가 여전히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선영이나 위토와 같은 세장지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집성촌의 생명력을 지속시키고 있기도 하다.

도시개발로 사라진 대표적인 집성촌은 사동 양주최씨 집성촌, 고잔동 남양홍씨 집성촌, 원시동 김해김씨 집성촌이다. 반면 부모 세대가 여전히 거주하며 선영과 위토를 보유하여 집성촌의 형태가 일부라도 유지되고 있는 곳은 부곡동 진유씨 집성촌, 양상동 진주강씨 집성촌, 팔곡일동 여흥민씨 집성촌, 화정동 김녕김씨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 남아 있는 집성촌의 모습

안산지역은 1970년대 후반부터 반월공단을 조성하고 최근까지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자연마을이 사라졌다. 현재 남아 있는 자연마을은 주로 시의 북쪽과 동쪽 경계지역으로 화정동·양상동·장하동·장상동·부곡동·팔곡일동·건건동·사사동 등이다. 그중에서 본 사례 조사는 팔곡일동·양상동·부곡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팔곡일동 여흥민씨 집성촌⁷⁾

1) 집성촌의 형성

팔곡일동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군포시 대야동 수리산 일대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선학골(선학동)·능앞(능전)·남산뜰(남산평)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여흥민씨가 대성이다. 반면 그 옆에 있는 팔곡이동은 각성이 많이 살았으며 자연촌락은 셋골(소학)·담너머(담원) 등이 있다.

선학동에는 여흥민씨 종가가 있고, 인근 남산뜰과 능앞으로 여흥민씨 일가가 퍼져있다. 팔곡일동에는 50여 호가 있는데 그중 여흥민씨는 10여 호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약 15호가 있었고, 많을 때는 30여 호까지 된 적도 있다고 한다.

여흥민씨가 팔곡일동에 정착한 것은 민대생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민대생은 한명회韓明滄의 장인으로 여말선초에 관직을 지낸 인물이다. 아들은 민효환閔孝權·민효흔閔孝忻·민효열閔孝悅 등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 민효열이 관직을 잇고 안산 선대 묘역 세계를 잇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8년(1462) 기사에는 한명회가 당시 남양에 머물고 있던 장인 민대생을 근친親親하러 갈 때 왕실에서 민대생의 집에 잔치를 내려 주었다고 한다.⁸⁾ 기사에서 거주지는 조선 초기 남양부로 사후에 현 팔곡일동에 묘역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묘역에는 민대생 후손들의 묘가 조성되어 있으며, 사당 덕성재德盛齋에는 12세 민대생, 13세 민효열, 14세 민반閔泮, 15세 민시생閔始生 등 4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이곳에서 시체를 지낸다.

7) 제보자 : 민병우(1933, 남, 여흥민씨), 민병관(1934, 남, 여흥민씨), 홍범기(1927, 남, 남양홍씨).

8) 《세조실록》 권28, 세조 8년 5월 6일. 上黨府院君韓明滄 親妻父中樞院副使閔大生于南陽辭, 諭京畿觀察使, 賜宴于大生家.



팔곡일동 선학골



팔곡일동 능앞

여흥민씨의 묘역은 15세기 중반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민씨 집성촌이 형성된 시기는 정확히 추정하기 힘들다. 다만 조상의 묘역을 관리하기 위해 후손이 직접 거주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팔곡일동 여흥민씨 민대생 묘

2) 일제강점기의 모습

일제강점기에는 여흥민씨 묘역에 딸린 위토를 경작하고 사는 ‘묘막지기’가 있어서 집안의 허드렛일을 맡아서 하였다. 민병관 씨는 묘막지기가 노비는 아니었지만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하인으로 허드렛일을 하였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여흥민씨 집에 상이 나면 상여를 메고, 장지를 조성하는 등의 일이었다. 허드렛일을 하는 대신에 이들 묘막지기는 묘역에 딸린 위토를 경작할 수 있었다. 위토는 파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위토를 경작하는 묘막지기가 따로 있었다. 위토를 관리하던 묘막지기는 많을 때 7~8호에 달했지만 해방 이후 전통적인 묘막이 점차 사라지면서 새로 위토의 경작을 맡은 사람은 더 이상 집안 허드렛일을 하지 않고 묘역 벌초와 시제 준비 등만 맡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상례 때 상여를 메는 사람이 모자라게 되었다. 더군다나 팔곡일동에는 전주이씨·남양홍씨 등 타성이 살았지만 기존에 상여를 메던 풍습이 신분과 관련이 있다 보니 선뜻 메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원의 장의사와 계약해서 상두꾼을 불러와 상을 치렀다고 한다. 수원에서 유명한 장의사는 강덕원이었는데 아직도 그 후손이 장의사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집성촌의 성격을 무조건 한 지역의 권력을 점유한 세거 성씨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물론 전통사회에서 지역의 권력을 점유하고 있는 집성촌도 있지만, 관직이나 지역의 권력을 확보한 집안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성촌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팔곡동 여흥민씨 집안의 경우는 조선시대에 관원을 많이 배출하여 지역사회에서 유명했던 집안이다. 일제강점기 선학동의 여흥민씨 종가는 본오동의 농지와 가옥을 비롯해서 위토 등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로 알려져 있었다.

제보자는 일제강점기에 팔곡일동의 자작농은 2호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만큼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소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여흥민씨라고 해도 토지 소유의

불균형은 컸다. 민병우 씨는 당시 집안에서 소작하던 토지가 한 섬지기, 즉 20마지기 정도였는데 농지개혁 이후 모두 분배받고 자작농이 되었다고 한다. 민병우 씨 뿐만 아니라 다른 민씨 일가도 종가의 토지를 소작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농지개혁이 단행되면서 종가의 토지는 집안 사람을 포함한 소작인에게 분배되었고, 지주의 재산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집성촌의 계락을 통한 상호협력은 일종의 중증 공동의례를 위한 족계(族契) 외에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팔곡이동이 팔곡일동과 비교하여 각성(各姓) 마을인데 두레·상계 등의 공동 활동과 계가 성행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집성촌은 각성촌에 비해서 잘살았기 때문에 계의 필요성이 적었던 것 같다고 한다.

3) 해방 이후의 모습

해방 이후에 자작농이 확대되어 그전보다 농사를 많이 짓게 된 민병우 씨 집에서는 1970년대 이전까지 매년마다 머슴을 고용했다. 1년 단위로 '세경'을 받아서 일하던 머슴은 마을 사람도 있었고 타지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민병우 씨는 2명의 머슴을 부리던 때도 있었는데 17세 청년이 들어와서 6~7년간 행랑에서 생활을 하다가 갔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장리쌀이 성행해서 쌀 수확이 많은 집에서는 장리를 놓았는데, 쌀값이 비쌀 때는 '뽕(楸)장리', 즉 1년 이자가 100%에 달하기도 하였다. 장리쌀을 빌려간 집에서 쌀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일을 해서 갚기도 하였는데, 1가마를 빌려 가면 모내기·김매기·수확 등 농번기에 꼬박 일해도 갚지 못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리품'으로 쌀 2말을 받아오면 모내기·김매기·수확기와 같은 농번기에 4번 일 해 주는 것에 상응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자리품을 팔러 다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거나 노름 때문에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팔곡일동 선학동·남산뜰·능앞에는 여전히 여흥민씨 집안 사람이 살고 있지만 과거 집성촌의 사회·경제적 맥락과는 다르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도 매년 음력 10월 시제가 다가오면 마을 내부의 여흥민씨뿐만 아니라 민대생으로부터 분파된 타 지역의 민씨가 팔곡일동에 모인다. 과거에는 며칠에 걸쳐서 각 묘소에 제물을 차려놓고 시제를 모셨지만, 2005년 12월에 묘역 아래에 재실 '덕성재(德盛齋)'를 조성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위패를 모셔놓고 시제를 지내고 있다. 2010년에는 음력 10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서 민대생을 비롯한 4위의 시제를 모시고 파

별로 묘역과 재실에서 시제를 지냈다.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여흥민씨 시제는 과거에 팔곡일동이 민씨의 집성촌이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연성성보》에는 여흥민씨 16세 민제인(閔齊仁)의 후손이 초지동과 선부동 등을 중심으로 세거했다고 한다. 그러나 《연성성보》는 과거 시흥군 수암면과 군자면 일대에 세거한 성씨를 중심으로 편찬되다 보니 화성군에 속했던 반월면 팔곡일동 여흥민씨의 세계는 실려 있지 않다.

2. 양상동 진주강씨 집성촌⁹⁾

1) 집성촌의 형성

양상동의 자연마을로는 옷버대와 아랫버대가 있다. 옷버대에는 해주최씨가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전해지며 그 후 사천목씨·나주정씨·진주강씨가 세거하였고, 아랫버대는 진주강씨가 분가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옷버대에는 30여 호가 있었고, 현재는 60여 호로 늘었다. 아랫버대의 경우 현재 60여 호 정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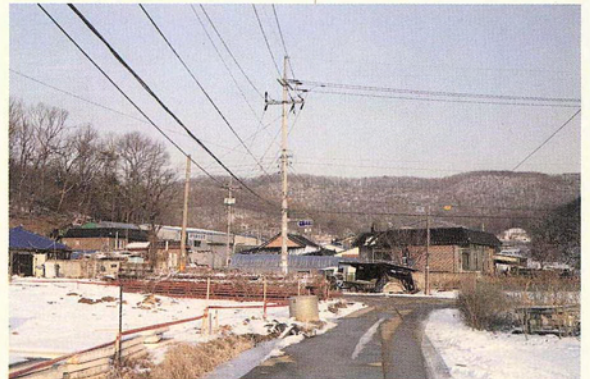
진주강씨가 양상동에 정착한 것은 10세 강징(姜徵)의 묘역이 조성되면서부터이다. 강징은 중종반정 때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에 책봉되었고, 이후에 예조참판까지 지낸 인물이다. 중종 때 안산지역에 사패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해주목사를 지낸 5남 목사공 강위(姜偉)의 묘가 양상동에 있다. 《연성성보》에 나온 양상동 진주강씨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1세 계옹(啓庸)

2세 인문(仁文)

3세 사침(師瞻)

4세 次子 창귀(昌貴)



양상동 옷버대

9) 제보자 : 강희태(1933, 남, 진주강씨), 강희철(1934, 남, 진주강씨).

- 5世 長子 군보(君寶)
- 6世 長子 시(耆)
- 7世 次子 회중(淮仲)
- 8世 次子 안복(安福)
- 9世 六子 이행(利行)
- 10世 長子 징(激) - 참판공(參判公)
- 11世 五子 위(偉) - 목사공(牧使公)
- 12世 次子 계서(季瑞)
- 13世 長子 종선(宗善)
- 14世 長子 상(尙)
- 15世 次子 익량(益亮)
- 16世 진웅(震雄) · 진걸(震傑) · 진상(震相) · 진망(震望)



양상동 진주강씨 시제

강희설 씨는, 참판을 지낸 10세 강징에게 아들이 7명 있었는데 감찰을 지낸 장자 강희(姜僖)와 목사를 지낸 5자 강위의 후손들이 주로 근기지역에 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양상동 버대가 토질은 좋으나 물길이 짧은 천수답이고, 풍토병인 해수(咳嗽)기침 때문에 후손이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서해와 강화도가 인접해 있어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국란이 있을 때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강

징의 3자인 정언공 강억(姜億)의 후손은 경북 봉화군 법전과 전남 고창에 터를 잡았으며 현달한 후손을 많이 배출하였다. 안산 문중은 16세 강진웅과 강진걸의 후손이 주로 세거하였다. 현재 양상동 진주강씨 중손은 15세 강익량의 직계 후손으로 시조로부터 26세손이 된다.

한편 안산의 대표적 인물의 한 명인 표암 강세황(姜世晃)(1713~1791)은 박사공(博士公) 강계용(姜啓庸)의 후손이지만 표암의 계통은 7세조에서 강희백(姜淮伯) 계통으로 내려오고, 강징의 경우 강희백의 동생인 강회중(姜淮仲)의 계통으로 내려온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수암면장을 역임한 강희대 씨는, 17세기 중엽 숙종 이후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과 남구만 등을 중심으로 한 소론으로 갈라졌을 때 양상동 진주강씨 후손은 노론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강세황 집안의 경우 소북 계열로 양상동 진주강씨와는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도

시제 때 진설을 보면, 양상동 진주강씨의 경우 조율이시를 따르고 강세황의 처가였던 진주유씨 청문당 시제는 홍동백서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과거의 정치색이 의례의 격식에 각인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중 소장의 <진산강씨중계입의서晉山姜氏宗稷立議序>¹⁰⁾에 의하면 양상동에 진주강씨 종중이 형성된 것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아가신 부모의 제사를 받들다보면 자연 세월이 흐르고 자손들도 갈려 4대가 되면 시제로 모심이 관례이거늘 우리 목사공(諱偉, 11세조)은 4대봉사가 지나 3대를 더 내려왔으니 위전(位田)을 마련하여 시제를 모심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는 대대로 청빈을 가풍으로 알고 살아 살림이 어렵지만 묘하의 후손들은 해마다 향화(香火)만은 거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위전이라고는 송곳 꽃을 곳도 없으니 지척에서 돌볼 묘지기인들 있겠는가? 불초한 후손들은 외지에 헤어져 살다보니 장차 나무꾼이나 짐승들이 유택을 훼손한들 그 누가 돌볼 것이며 시제인들 내일 처럼 계속 지낼지를 생각하면 걱정과 눈물이 앞설 뿐이다

고향을 떠나 호중(湖中)에 사는 재중제(再從弟) 덕기(德基)가 시제 때면 올라와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몇 마지기 위답을 마련해야 장차 시제 걱정을 잊을 수 있을 터인데……”라고 한탄할 뿐 신통한 방안을 찾지 못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덕기 아우가 동전 꾸러미를 차고 올라와 중회 회의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빈곤하다며 한 해 두 해 허송세월만 하다가는 위전을 마련할 수가 없고 또 그렇다고 어찌 시제를 곱할 수 있겠는가? 같은 후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얼마씩을 거두어 몇 해 노력한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성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집안의 우의는 다른 집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니 이에 참여치 않는 일기는 없을 것이다”라 했다. 이런 열성적 논의 끝에 우리 모두가 참여키로 결의하고 오늘 중계를 발족하니 형편에 따라 다과를 불문하고 성심성의껏 계를 모아 증식시켜 간다면 몇 해 안가서 전답을 마련할 수 있겠으니 이는 바로 덕기 아우의 큰 힘이라 하겠다.

또한 조상을 위하는 지극한 정성은 후일 우리가 바로 그 은덕을 받게 될 것이니 만일 이에 동참치 못한 후손이 있다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병오년(1786) 10월 21일
중형(宗兄) 효기(孝基) 씀

<진산강씨중계입의서>

10) 이 문서는 목사공과 종중이 아니라 구리에 있는 진주강씨 문중에서 찾은 문서라고 한다. 중계입의 내용은 목사공파에서 편찬한 <富閑世蹟>(진주강씨목사공파중회 안산문중, 216~217쪽)에서 인용하였다

‘중계입의’를 쓴 강효기는 강익량의 직계 증손자인데, 글 내용을 보면 당시까지는 11세 목사공 강위의 위전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중계를 만들어서 위전을 마련할 자금을 모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당시 묘하(墓下)에 사는 후손이 제사를 모셨다는 언급을 보면 진주강씨 후손이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중계를 설립한 이후 자금을 모아 증식하여 목사공 묘역에 딸린 위토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6·25전쟁 때 문헌이 소실되어 그 이후의 위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종종 고문인 강희설 씨는 일제강점기 ‘영永’자와 ‘원元’자 항렬의 종원이 10여 년 간 쌀을 거두어 장리를 놓고 소도 키워서 1932년에 전답 3,300평을 위토로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오늘날 시제를 모실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2) 일제강점기의 모습

일제강점기 양상동의 구장은 진주강씨였다. 구장에게는 동민들이 조곡(糶穀)을 모아서 주었는데, 여름에는 보리쌀 1말, 가을에는 쌀 1말을 호마다 각출하였다. 당시 마을의 자작농은 2~3호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작을 하였다. 양상동 일대에서는 목훈상과 김지용 등 2명의 지주가 유명하였고, 동민은 그들의 농지를 주로 소작하였다. 김지용은 당시 토지측량을 할 때 사무를 보았던 인물로 주인이 뚜렷하지 않은 땅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해서 지주가 되었다고 한다.

강희태 씨 집안은 3,000평 정도 소작을 하였는데, 해방 후인 1946년 토지개혁 때 5년 상환 형식으로 분배를 받았다. 토지개혁을 할 때 지주들은 사전방매를 해서 손해를 줄이고자 한 경우도 있었으며, 집안 내부에서도 토지소유관계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한 씨족의 토지를 친척이 소작을 하다가 토지개혁이 되기 전에 땅 주인이 사전방매를 하려고 했지만 그 소작인이 이를 못하도록 막고 분배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진주강씨도 종가 등을 제외하면 농지가 거의 없었지만 문중 위토는 꽤 보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강징의 묘에 딸린 위토는 대략 10여 마지가 되었다. 그 문중답(門中畓)은 묘수호인에게 맡겼으며, 묘수호인은 친족 내부에서 돌아가면서 맡았다. 강희태 씨 아버지도 문중 위토를 맡아서 경작하였는데, 강희태 씨가 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위토의 경작을 재당숙에게 내어 주었다고 한다. 묘수호인을 집안 하인으로 부리는 동네도 있지만, 양상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작을 짓던 상황에서 외부인에게 관리를 맡기지 않고 족친에게 맡겼다. 문중 내부

에서도 위토답을 경작하려는 경쟁이 있었지만 문중회의를 거쳐서 성실히 위토를 관리해 줄 문중원을 지정하였다.

한편 양상동에는 진주강씨 대동회가 있었고 선달그믐에 진행하였다. 그날은 이사 온 사람이 신임례로 술 1동이와 다른 먹을거리를 준비해서 동네 사람에게 대접하였고 동민은 구장과 이장에게 조곡을 하였다.

또한 마을 공동물품을 구비해 혼례나 상장례가 있을 때 일정액의 세전을 받고 빌려 주었다. 공동물품으로는 차일·상여·2인교 가마·사모관대·족두리 등이 있었으며, 6·25전쟁 이후 망실되어서 다시 구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예식장 중심의 신식 혼례가 시작되면서 가마·사모관대·족두리 사용은 거의 사라졌고, 상여는 1990년대까지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부유한 집에서만 소를 키웠는데, 해방 전후로 마을에 6~7마리 정도 있었다. 양상동에서는 소를 하루 빌려 주면 품값으로 사람도 하루 일 해 주는 식으로 책정해서 받았다. 해방 전후 소 값이 농지 3~4마지기 가격이었기 때문에 매우 큰 재산이었다. 농우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양상동에 '어리소'와 '도지소' 같은 관행도 있었다. '어리소'는 암송아지를 사서 남에게 맡겨 키우게 한 뒤, 새끼를 낳으면 성장한 소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새끼는 키운 사람이 가지는 방식이다. 만약 새끼를 못 낳을 때는 성장한 소를 팔아서 주인과 키운 사람이 5:5로 나누었다. '도지소'는 소를 1년 동안 남에게 빌려 주고 도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1년에 쌀 2~3가마를 도지로 받았다.

3) 해방 이후의 모습

장례는 웃버대와 아랫버대가 협력해서 치렀는데 장지 노역이나 상여를 메는 일과 같은 허드렛일은 하인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하인을 부리는 일이 사라지면서 상계喪契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상계는 초기에 쌀을 각출해서 본전으로 삼고 장리를 놓아서 기금을 늘여 나갔다. 그렇게 만든 기금은 계원 집에서 상이 나면 수원의 장의사와 계약을 맺고 상두꾼을 불러와 상을 치르는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있었지만 상여 메는 등의 일은 하인이 하던 일이라 직접 하지는 않았으며, 수원에서 상두꾼을 불러와서 일을 시키고 상계를 통해서 비용을 충당한 것이다. 수원 장의사는 소리꾼과 상두꾼을 포함해 9~12명을 마차로 태워와서 상례를 지냈다. 그리고 상여가 나갈 때나 회다지를 할 때 새끼를 꼬아서 모자란 수입을 보충하였다고 한다. 수원의 상두꾼을 활용한 이러한 관행은

1960년대 윗버대와 아랫버대에 각각 독립적으로 상계를 운영한 이후 1980년대 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해방 이후 토지분배를 많이 받은 양상동 자작농가의 경우 머슴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머슴은 일의 숙련도에 따라서 상·중·하 등급을 매겨서 상일꾼은 1년에 벼 8가마에서 많게는 20가마까지도 받았고, 중일꾼은 6가마 내외, 하일꾼은 2가마 내외를 받았다. 고용한 집에서는 행량을 만들어 내어 주고, 1년간 의복 등을 함께 제공해 주었다. 한창 머슴을 고용했던 시기에는 주로 머슴들끼리의 소개를 통해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머슴 고용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강희태 씨는 집성촌은 친인척 관계가 마을에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집안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예법이나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각성촌락의 경우에는 자기 의견이 강한 편이고 동민 간 유대관계가 집성촌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각성바지 마을도 다양한 계모임과 두레가 발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성촌의 유대관계가 더 긴밀하다고 결론지어 말할 수는 없다.

3. 부곡동 진주유씨 집성촌¹¹⁾

부곡동은 동쪽으로는 군포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일부 도시개발이 진행된 상태이다. 진주유씨 집성촌인 개멸은 자연마을 내부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촌락의 형태를 찾아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부곡동 자연마을은 진주유씨 입향 이후에 점차 인근으로의 분가로 확장이 되

11) 제보자 : 유보형(1927, 남, 진주유씨).



부곡동 진주유씨 청문당



부곡동 진주유씨 경성당

었다. 유시회(柳時會)의 문적을 모은 《성산공유사(星山公遺事)》에서는 진주유씨가 부곡동에 터를 잡은 내력이 당대의 유명한 지관인 박상의(朴尙毅)에게 부탁해 대대로 자손이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시회의 동생 유시행(柳時行)에게는 아들 유적(柳頤)이 있었는데, 유적이 선조의 9녀 정정옹주(貞正翁主)의 부마로 뽑혀 진안위(晉安尉)로 봉해졌다. 그러나 가례를 올리기도 전에 유시행이 별세하자 선조는 부곡리 일대를 장지로 하사하였다. 그 이후 안산의 어염권과 사패지를 기반으로 진주유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청문당은 진주유씨 대종가로 유시회의 직계 자손이 대종손의 세계를 잇고 있다. 족보상의 세계로 따지면 유시회가 시조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적자(嫡子)의 대가 끊어지고 서자(庶子)가 대종통을 잇게 될 상황이 되자 16세기 중반에 대제학 등을 지낸 문중 어른 서경공(西峒公) 유근(柳根) 등의 주장으로 당시 차종손이었던 유시회 계통이 종통이 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서자 계통의 집안에서 재력을 발판으로 잃어버린 종통의 지위를 족보 발간으로 확보하려고 하면서 시비가 일어났다. 결국 1988년 진주유씨 대종중에서 대종통과 관련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대종통문제 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시회 계통을 대종손으로 확정하였다. 부곡동 청문당 진주유씨 대종손의 세계를 《연성성보》를 참고하여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세 정(挺)

2세 숙(淑)

3세 둔식(敦植)

.....

14세 次子 영문(榮門)

15세 격(格), 근(根, 西峒公)

16세 시회(時會), 시행(時行)

17세 석(碩), 적(頤 : 선조 부마), 영(穎)

18세 명천(命天 : 系), 명전(命全 : 系), 명견(命堅), 명전(命傳), 명현(命賢)

19세 모(模)

20세 경용(慶容)

21세 신(賁)

22세 중려(重呂)

23세 흥(興)

24세 원영(遠永)

25세 혁수(赫秀)

26세 해욱(海昱)

매년 음력 10월 13일 시제를 지내는데 최근에는 묘역이 아닌 청문당 대청에서 시제를 올린다.

Ⅰ 참고문헌 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해동지도》, 《광여도》, 《대동여지도》, 《증보문헌비고》, 《임원경제지》, 《경기지》, 《경기읍지》, 《호구총수》, 《조선지리지자료》, 《안산군읍지》, 《조선후기지방지도》.

《안산김씨족보》, 1726, 목판본.

《청주한씨 소지》.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1957.

《연성성보》, 농경출판사, 198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 : 경기도편(상)》, 1985.

내고장안산편찬위원회, 《내고장 안산》, 1990.

안산시사편찬위원회, 《안산시사》, 1999.

안산시, 《안산통계연보》, 1987·2010.

오치 다이시치(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 : 中央市場, 1917.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朝鮮の聚落》, 1933.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 《朝鮮の姓》, 1934.

이상균 | 지역문화연구소 연구원